FEB 1 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48 1982년2월15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February 1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김정일 권력일부만 세습

김일성은「우상화된 수령」으로 남아

◇김일성

(도오꾜)오는 4월이면70세 생일을 맞는 북한 김일성은 자기 권력의 일부를 아들 김정일에게 물려줄것이 확실하다고 그로브·앤드·메일지가 12일 보도했다.

한국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커 특파원은 얼마전 서울을 다녀와 현 한국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었다.

다음은 그의 보도 요약이다.

동경과 서울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이 우선 노동당서기장직을 아들 김정일에게 물려줄 것이라 확실하다고 본다. 김정일은 80년 10월이후 당에서 아버지다음의 제2인자로 부상했다. 김정일은 김동으로 구성된 5인의 정치국중 4번째 서열이었다.

김정일이 권력중심부에 자리잡은 증거로는 그의이름이 최근 들어 평양방송등 언론에 더욱 자주 나타나며 외국손님들의 접대에도 항상 김과 같이 또는독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1년전만해도 흔치 않았다.

남한의 북한문제전문 가인 한 대학교수는 "김정일은 1년사이에 활약이 크게 증가했다. 그는 분명히 외국에 알려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산국가 지도자중 가장 우상화된 김일성은 해방후 북한을 지배해온 그의 모든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을것이며 일선 정치가보다 우상화된 지도자로서 남을것이 분명하다.

김정일의 권력세습의 증거는 몇년전 노동당총회가 그를 당 중앙정치국원으로 뽑은데서 시작된다. 그 이후 그의 사진은 곳곳에 나타나고 모든 선전물에 그의 이름이 등장했다.

1년전 서울에 날아온 북한의 선전물에는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영도자로 받들자"는 귀절이 있었다.

◇김정일

◇김영주

한동안 김정일은 김일성의동생 김영주와 치열한권력투쟁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김영주는 당중앙정치국 에서 제외되고 김정일이 그자리에 앉음으로써 김정일이승리했다고 간주된다.

한편 김정일은 계모와이복동생들에 불안을 느낀다. 이들은 김정일의 권력세습에 반대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중공이나 소련이 권력세습을 부정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공산국가에서 권력세습은 존재하자 않는다.

작년8월이후 부상한 김정일은 최근 중공관리들과 가진 농업문제회의도 주관했다. 이것은 아마 중공이 권력세습을 인정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았다.

최근 평양을 방문했던한 학자는 북한주민들이 권력투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김정일은 자연스럽게권력세습할 것이라고말했다.

김정일은 지난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서많은것을 배웠다.

그가 연출한 것으로 믿어지는 이 사건에서 북한병사들은 미국장교2명을도끼로 때려 죽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이후 김정일은 2년반동안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했다.

남한의 관측자는"김정일이 더 현실적이다. 그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를 추구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으나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유연하다고 보는사람은 없다.

김정일은 6.25의 경험이 없고 만주, 동독등에서 교육을 받았다. 남한의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 북한인들에게 자기도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남한에 대규모 특공대를 보내거나 남한을공격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환율 계속 인상

미화가치 상승으로

(서울11일=연합)국제환율시장에서 달라가치의 상승으로 한국의 대미환율은 계속인상, 1달러당 710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11일 한국중앙은행이 밝혔다.

11일현재 미화1달러는한국은행 집중기준률에의해 한화 709.50원에 교환되고 있다.

미달러에대한「원」화의가치는 금년들어 1.3%(9원) 떨어졌다.

이곳의 금융소식통은 11일현재 해외은행에서 3개월후 대미환률은 725원 6개월후 740원으로 내다봤다.

방사능 누출우려

캔두원자로에 사고

한국등에 판매한 캐나다의 캔두원자로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겼다.

이같은 사실은 온타리오주 킨카딘에 있는 부르스 원자발전소의 750메가왓 발전원자로중 하나가 새고 있음이 최근 밝혀져 문제화된 것이다.

압력파이프(프레서·튜브)에서 나오는 이 누출은 설계상의 착오또는 금속의결함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캐나다는 한국, 아르헨티나등에 캔두 원자로를 팔았다.

원자로에는 직경 103㎜, 길이 6.3m의 압력튜브가 480개 있다.

"성명전과는 무관"

제일식품서 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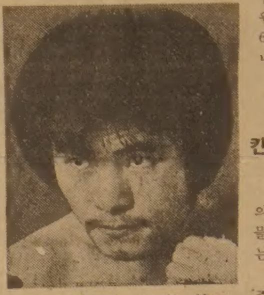
블루어·스트릿의 제일식품경영 김덕기씨는 자기는 셀문제 때문에 팬·아시아식품도매상(대표 이창복)와 대립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소매상으로서 가격등 여러문제 때문에 D·Y.가주미를 선택한것이라고 11일 말했다.

지난10일자 본보기사와 관련, 김씨는 일부 교민들은 자기가 팬 아시아와 문제가 있어 한밭, 서울, 삼복등과 합세한 것처럼 오인한다 면서 "이제 개업한지 2개월밖에 안되며 절대 어떤 도매상과의 불화는 없다"고 말했다.

김철호 WBC타이틀 방어

8회KO로 이시이눌러


◇챔피언 金喆鎬

(대구 10일=연합) 세계권투위원회(WBC) 수퍼플라이급 챔피언인 한국의김철호(21)는 10일밤 15회전경기에서 8회에 일본의 고끼·이시이(28)를 K.O. 시켜 타이틀을 방어했다.

8회전 공이 울리자마자 김은 도전자의 머리와 몸에 연타로 훅을 날려 8회전 시작 47초만에 도전자 이시이를 굴복시켰다.

이로써 김은 81년1월 베네주엘라의 라파엘·오로노로부터 왕관을 뺏은 이래 4차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했다.

도전자 이시이는 3회전에서 스트레이트 라이트로 다운을 뺏는 등 처음에는 호조를 보였으나 6회에 김의 강한 레프트훅을 맞고 다운을 당했다.

7회전에 들어 챔피온김은 빠른 어퍼·컷을 도전자 이시이의 턱에 작렬시켜또 한번 다운을 뺏었다. 이때부터 이시이는 전의를 상실, 크로키상태가 됐으나공이울려 위기를 모면했다.

7회전까지 주심과 2명의 부심의 점수는 70:62, 68:63으로 김에게 유리했다.

이번 승리로 김은 21전 19승1패1무를 기록했으며 이시이는 79년 프로전향후 처음 패배했다. 그는 지금까지 9연승의 기록을 올렸다.

경기후 김은 그의현재희망은 전세계 권투협회(WBA)플라이급 챔피언 박찬희가세운 5번의 타이틀 방어기록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은이번경기의 승리로 12만달러를 받아, 한국권투 경기사상 가장 많은 대전료를받았다.

한편 소식통에 의하면김선수는 WBC3위 라파엘 오로나와 5차방어전을 갖는다.

김선수는 오로노로 부터 챔피온을 뺏은바 있다. 대전 장소로는 충남 대전이 유력시 된다.

오늘의 예금금리 (2월6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59일	13.75%	12.5~13.5%
	60~89일	14%	12.75~13.75%
	90~179일	14.25%	13~14%
	180~1년	14.5%	14.25%
보험이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미군 5만7천 참가

"팀·스피릿82" 한미합동

(서울12일=연합)미 제7함대소속 항공모함「미드웨이」호는 2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한국에서 실시되는 한·미 합동기동훈련「팀·스트릿82」에 참가할 것이라고 한미합동사령부가 11일 밝혔다.

5만1천톤의 미드웨이가 이훈련에 최초 참가한 것은 3년전인 79년이다.

관계당국자에 의하면 해마다 실시되는 이 작전에 주한미군 3만4천명을포함, 총 57,600명의 미군이 참가한다.

주한미군을 제외한 나머지27,200명의 미군은 미본토, 오끼나와, 하와이및 필리핀기지에서 출동된다.

미 제7보병사단 소속900명 병력은 캘리포니아 기지에서 직접 공수된다.

◇유난히 눈이 많이내리는 올 겨울 날씨로 눈에빠진 차들을 빼느라 애쓰는 광경이 여기저기 눈에 뜨인다. 그러나 빠지지 않는차를 빼는데는 많은 조심성이 필요하다. 에이진·코트에 사는 세키모도 여인은 친구인고도여인과함께 더퍼린·스트릿과 프레드톤·애비뉴를 지나다 눈에빠져 자동차가 옴짝도 안하자, 차를 밀어보기로 작정했다. 친구 고도여인이 뒤에서 밀고 세키모도 여인은 운전하던중 서로 신호가 엇갈려 그만 고도여인이 차에깔려 가슴위로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타박상이 중하진 않았지만 친구를 다치게한 세키모도여인의 슬픔은 더욱컸다. (사진 오른쪽)

◁금주의 행사▷

(2월15일~21일)

◇20일(토)상오11시 수학경시대회
곳 : University of Toronto(60 St. George St.) McLennan Physical Lab Room 102
연락처 : 247-2998(김중수)

◇20일(토)하오7시 토론토동우회 정기총회
곳 : 한인회관강당(20 Mobile Dr.)
연락처 : 757-9410(원영신)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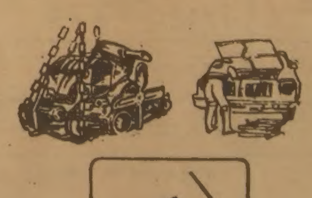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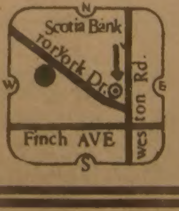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컴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처음시도되는 카메라바자

사진협회, 무료 촬영지도

캐나다한인사진협회 (회장：전경수)는 올해 사업의 하나로 오는 27일 하오 2시 한인회관에서 카메라바자및 무료클리닉을 실시한다. 이날 촬영실기 지도도 아울러 할 예정이다.

사진협회 이기성 총무는 카메라 촬영기술과 고장등에 대해 그동안 초보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다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초보자는 물론 사진애호가들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다.

이날 바자에는 각종 카메라, 촬영기, 프로젝터, 렌즈, 조명기구, 암실 기구등 사진과 관련된 일체의 품목을 취급한다. 누구든 지 교환이나 판매하고 싶은물건이 있으면 당일 갖고 나와 진열해 놓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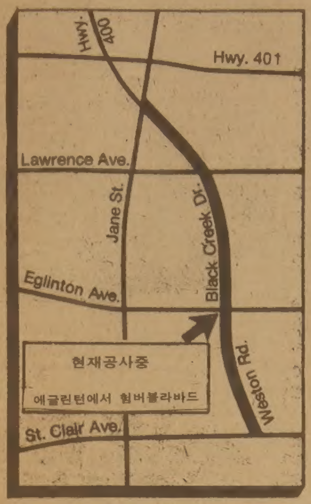
◇전경수 사진협회장

바자와 아울러 이날 전문가들이 직접 출장, 카메라의 주요부분과 후래쉬등을 무료로 베스트 해주며, 프로모델을 동원, 실내촬영에 대한 실기지도도 한다.

사진협회의 금년도 계획으로는 9월말 본사와 공동주최하는 단풍촬영대회, 회원들의 록키산맥 관광촬영여행(6월말)및 초보자를위한 실습과 이론 강습등이 있다.

이총무는 올해는 회원증가를 위해 특별히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사진에 흥미가 있고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진협회는 4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비는 연 $20이다.



◇연장된 하이웨이 400이 에글린턴까지 완공됐다.

하이웨이 400 연장공사

에글린턴까지 완성

하이웨이400연장 공사가 욕지구 시장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세인트·클레어」까지 연결되는 3천만달러의 하이웨이400 연장공사는「 에글린턴」까지 일부완성, 개통을 얼마두지않은 이때 게일·크리스티 시장은 9일개통보류를 온타리오주 교통통신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크리스티는 종착지인 웨스턴·로드×험버 블러바드까지의 공사가 끝나기전에는 개통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당국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 관계부처에 의하면 메트로에서 요청한 이상 도로개통은 몇주안에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크리스티는 도로 연장으로 욕지구 재개발에 큰 도움을 주므로 연장에 원칙적으로 반대치 않으나 증가된 교통량이 욕지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아직 알수없기 때문에 개통보류를 원하는 것이라고말했다.

크리스티는 주정부가 오래전 그녀의 지구(The Borough of York)에 종착지까지의 도로가 완공될때까지 개통하지 않을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주 메트로시위원회 투표에서 18：12로 에글린턴까지 연장된 하이웨이 개통요청을 주정부에 하기로 가결, 주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에글린턴 밑의 나머지도로는 올가을까지 완성예정이나 하이웨이 401부터 에글린턴까지의 연장된 하이웨이 400은 지난 가을이래 개통준비가 되었다.

◇기마대순경이 자동차와 충돌, 말에서 떨어지고 있다. 최근 벨기에 철강산업 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5천여 노조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으로 16명의 순경들이 중경상을 당했다.

함병춘교수등 통일강연서 주장

"남북은 서로 인정해야"

(서울 11일=연합) 남북한 당국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에 앞서 쌍방의 존재를 상호 인정해야 된다고 전 주미대사였던 연세대학교 함병춘교수가 말했다.

한국의 여당 민정당의주관으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을위한 국제심포지엄 에서함교수는「한국의 통일정책과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연을 했다.

이어 등단한 초청 연사 뉴욕 헌터대학의 도날드·자고리아교수는 "지난1.22 전대통령의 통일방안 제안은 지금까지 남·북한 쌍방의 통일방안중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서울측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전망에 대해 자고리아교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볼 때 낙관적이라는 견해를 폈다.

이번 심포지엄은 12일까지 계속되며 서울대 정종욱교수, 고려대의 한배호교수, 서독 쾰른대학 엔스·하커교수및 일본 동경제대 아끼오·와다나베교수의 강연이 계속 발표됐다.

함교수와 자고리아 교수의 강연요지는 다음과같다.

◇함병춘교수의 강연요지

한반도가 분단된지 36년이지난 지금까지도 남북으로 분단된 가족들의 고통과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은 얼마간의 시간을 요하므로 이들의 고뇌를 덜어줄 즉각적인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이산가족들이 바라는것은 헤어진 가족과 친척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있으며, 그들이 무사히 지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치사상적 논쟁이 필요없는 스포츠와 학문의 교류는 남북한이 상호 협력할수있는 가능한 부분이며 통일의 첫 걸음이다.

◇자고리아교수 강연요지

평양에 가장 영향력있는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은북한주석 김일성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계획을 억제하고 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북한의 무력도발로부터 남한을 방위한다는 정책을 확고히 표시했다.

북한은 현재 남한과 경제경쟁에서 열세여서 서방선진기술과 신용을 얻기위해 서방세계와 교역증진을 열망하고 있다.

신석기시대의 중국은

여자가 지배했다

중공 서안서 최대 유적지 발굴

중국은 수천년동안 남성이 지배해온 남성사회이지만 최근 서안근처의 한 석기시대 유적지에서 여성이 중국을 지배했음을 보여주는 유물과 유적이 다수 발굴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고 학자들은 최근 중국최대의 신석기시대 유적지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서안동쪽 6km 지점의 반포마을에서 6천년전 여성이 지배하는 씨족사회가 존재했으며 이곳이 바로 모계사회의 전형적인 모델임을 밝혀냈는데 중국전역에는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5천여군데의 신석기시대 유적지가 보고되고있다.

고고학자들은 신석기시대 황하유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가 온화했으며 타조와 물소등의 동물이 많이 서식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발굴작업에 참가했던 학자들은「반포」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야만생활을 벗어나 돌호미와 낫을 이용, 기장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주거형태도 중앙건물을 중심으로 40여채의 진흙 또는 초옥이 몰려 있는 둘레를 하수시설이 둘러싸고 있는등 오늘날의그것과 비슷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반포」사람들은 오늘날의 것과 유사한 낚싯바늘을 고안, 사용했으며 물을 뜰때 그릇에 물이 차면 저절로 일어서도록끝이 뾰족한 용기를 사용하는등 복잡한 기구들을 사용했었다고 밝혔다.

남성천하는 쟁기발명후
여자무덤서 귀중품쏟아져

학자들이 추정하는 여성우위의 이유는 당시 여성들이 남성보다 먼저 농사비결을 터득했기 때문.

여성들은 남자들이 사냥을 하는 동안 집안에서 짐승들이 먹는 야생식물을 다룬 끝에 식물의 생명주기를 알게됐으며 이에 따라 당시로서는 가위 산업혁명에 비견될만한 영농기술을 터득했다.

또 당시 영농기구의 주종이 돌호미였던 것도 여성우위사회의 한 증거가된다.

보다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쟁기가 반영된 것은 그뒤 수천년이 지나서였으며 쟁기를 이용, 농업 생산이 크게 늘게되자 남성우위자회가 자리잡게 됐다.

무덤속의 부장품도 여성우위의 한증거. 여성의 무덤에서는 많은 부장품이발견되고 있으나 남성의 무덤에서는 전혀 발견되지않고 있으며 여자와 남자의 합장이 없는것으로 보아 1부1처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여성이 씨족사회를 이끌고 있었으므로자식과 후손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으며 남자는 일단 배우자로 선택됐더라도 여성이 더이상 원하지 않을때는 언제라도 보따리를 싸 그자신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른 씨족의 땅에서 죽었을 경우에도 유골은 원래 씨족에게로 보내졌다.

물론 이같은 가정은 명문화된 기록이 없으므로환경적인 증거들에 입각, 추정된 것이지만 신석기시대 중국을 여성이 지배했던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주간女性

◇선사시대의 중국에서는 여성위주의 사회가 형성돼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서안유물조사에서 나타났다. 〔사진은 중국의 고분발굴 광경〕

경제생활과 우리 ⑨

투자상담편 ‖ 담당 강상우(메릴린치 증권회사 근무)

금·은 투자의 효과적방법

일반대중은 금을사서 올라가는 데에만 승부를걸고 Short(판)후 싼 가격에 다시사 돈을버는 방법은 사용할줄을 모른다. 반면 투기가들은 Short후 싸게 되삼으로 돈을 번다.

수개월 걸려 수백불 올라간 금값이 단 몇 주일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혹평하면 투기가들이 대중에게 금을사게 유도한 후 폭락시키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금이 $700씩할때 대중이 금을사려면 팔아주는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이처럼 높은 가격에 금을 공급해준 사람들이 바로 투기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비싼값에 팔고 값을 떨어뜨려 싼값에 되사곤 하는데 값을 떨어뜨리는것은 10%의 Margin으로 운영되는 선물시장의 특수성을이용하면 아주 간단하다. 그러면 대중은 Short Sale을 거의 못하는가?

이론적으로 구매의 경우는 손실이 한정되나 Short의 경우는 손실이 무한대일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때문이다.

$300에산 금이 $0(Zero)가 되더라도 손실은 $300으로 한정되지만 $300에 Short한 금을 $2,300할때까지 못산다면 손실은 구매의 경우보다 훨씬크다.

금가격은투기가 조작
팔고사는 시기선택이 중요

이렇게 구매만 한다는사실을 교묘히 이용하여 돈을 버는것이 바로 투기전문가들이다.

아마츄어는 사면서, 프로는 팔면서 게임을 한다면 돈을버는 원리에대한 해답은 쉽게나온다. 물론 기술적인면도 가미는 되나 원리에만 입각한 전면을 보겠다.

우선 은행을통해 One Contract 분인 100온즈 단위로 사는데 온즈당 US 350에 금의 증서를 샀다하자 위험부담이란 $600～$800에 사지않은 이상 그리크지는 않다.

금값이 $350이하로 내려가면 가지고 있고, $450이상으로 올라가면그 금을 은행에가서 도로 파는것이 아니라 증권회사와 연락하여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금회시세가 $450이면 인도해주는조건 즉 3개월후 Future(선물)를 3개월이자를 가산US470 정도에 팔수있다. 간단히 말해 $350에산 금을 $ 470에 팔았으니 U$120씩만벌고 금은 없게된다.

그러나 선물시장에서 Short를한 목적은 여기에있는것이 아니다. US470에판 Future가 3개월전 언제라도 이보다 싼값으로 내려오면 이를 되 삼으로 선물거래에서 이윤을 보자는데에있다. $470 에 Short한 금을 $400에 되사면 선물거래에서 $70밖에 이윤은 없으나 은행을통해 산 금은 여전히 가지고있게된다. 금이 다시 US500 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오면 처음과같은 방법으로 선물시장에서 3개월 Future를 US520에 Short 했다가 US420에 되살수 있게되면 온즈당 US100씩의 이익을또 남긴다.

이 경우도 은행에서 산 금은 여전히 있다. 이런 전법을 사용하면 금이$350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돈을잃는법은 없다.

투기가들의 전유물인 Short의 전법을 사용할수있는 저력은 바로 금을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데에 있다. 이러한 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하며, 선물시장운영의 묘를 아는 좋은 부로커를 가져야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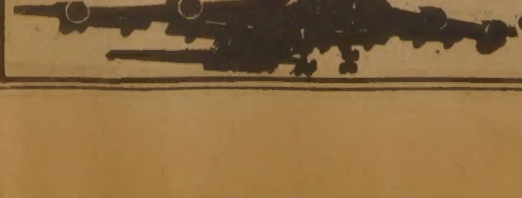
이와같이 선물시장은 대단히 빨리 움직이고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는것을 고려한다면 일반대중 에게는 금은에 대한 투기자 보다는 이들을 생산하는 광산주식이 오히려 훨씬 비람직 하다고 할 수도있다. 다음은"금과 금광산 주식에 대한 투자비교"를 보겠다. (계 속)

★구라파 관광★

출발일	1982년 7월 22일
귀환일	1982년 8월 10일
기 간	19박 20일
요 금	$1,550.00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2인 1실), 식사(아침17식 저녁12식) 구라파내 지상 및 해상교통 및 관광지 입장료, 한국인 안내자
방문지	영국(런던), 화란(암스텔담), 오지리(인스부루크) 이태리(베니스, 로마, 나포리 소리엔토, 카푸리, 플로렌스, 피사), 불란서(니스, 빠리), 스위스(제네바), 몬테칼로, 벨지움(오스텡)
예약마감	1982년4월30일까지 예약금 1인당 S200납부. 단) 취소시는 반환치 않음.
정 원	30명 선착순
기 타	잔액은 5월30일까지 완납.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캐너더일시 방문자도 가입할수있음.

★구라파 캠핑관광★

일 시	1982년 8월 2일 ～ 8월 26일
기 간	25 일
가 격	$1,457.00
방 문 국	10개국(영국, 화란, 서독, 스위스, 리첸슈타인, 오지리, 이태리, 바티칸 시, 모나코, 불란서)
가 격 에 포함된것	왕복항공료, 숙박비(2인1조) 관광 및 안내(관광명소 입장료 포함)
추가비용	식사비(1일3식) US 130.00현지에서 지불, 런던 호텔비(2박) CD 40.00
특 징	대상→남녀 대학생및 청년 야외캠핑 여행 식사는 동행요리사가 조리함. 한국인사회 저명인사 동행(감독자)
신청마감	1982년 4월 30일까지 신청금 S200지불 (취소시 S50은 반환하지 않음), 정원 40명(선착순)캐나다 여권준비
연 락 처	신세계 여행사 712 BLOOR ST. W. Toronto ☎536 － 2155 또는 KUSA(한국대학생회)



❖구라파 여행은
여러분의 신세계로··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김향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健康의 지름길 「가까운 주변서찾자」

잠자리는 彈力강해야 좋다

베개높이는 6~8cm가 理想的 낮으면 머리에 피올라 害로와

「등뼈굴곡 2~3cm가 적당 부드러운 침대는 安眠방해」

지구상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으나, 위를 향하고 자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위를 향하고 자는 자세는 무방비 상태니까 다른 동물은 그런 자세로 잘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네발자세에서 진화되어 두발로 걷게되자 몸의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 네발동물은 등뼈가 아치형으로서 몸통의 단면이 위아래로 가름한 원형으로 돼있다. 그런 형태가 중력에 대해서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은 두발로 걷게되자 등뼈가 S모양으로 휘어지고 몸통의 모양도 좌우로 편편한 원형으로 변했으며 등은 평면이 되었다. 그런 형태가 바로 서는 경우에 가장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몸의 형태로 말미암아 사람은 위를 향하고 자는것이 가장 편해졌다.

또한 손도 옆으로 돌릴수 있게 되었으니 서로 껴안는 동물은 사람 뿐이다. 다른동물은 손이 앞뒤로 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인생의 3분의1은 잠을 잔다. 그런데 우리는 잠자리에 관해서 너무 소홀한것이 아닐까. 잘때는 어떤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지, 제각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언뜻 생각나는것이, 서있는 자세를 그냥 유지한채로 눕는 자세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자기에 거북하다. 누워서 기분좋은 자세는 등뼈가 곧게 펼어지는 자세다.

사람이 자연스런 자세로 서있을 때 등뼈의 S자형 굴곡은 약4~6cm이다. 그런데 누워서 기분좋은 자세를 취하면 그부분의 굴곡이 2~3cm에 불과하다. 그보다도 굴곡이 작으면 판자 위에 누워있는 느낌이요, 그보다도 굴곡이 커지면 배가 튀어나온 느낌이어서 잠자기에 거북하다.

이처럼 서있을때 기분좋은 자세와 누워있을때 기분좋은 자세가 다른 까닭은, 서있을때와 누워있을때와는 중력이 미치는 방향이 90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면을해서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등뼈의 굴곡을 2~3cm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의 몸은 두부, 흉부, 골격 3블록을 경추, 요추 2마디에서 연결하고 있는 구조다.

서있는 자세에서는 위의 3블록이 중력의 방향으로 포개지므로 문제가 없으나 누운자세서는 여러 블록이 각기 독립되어 매트리스(요) 속으로 가라 앉는다. 그래서 연결부분이 떠올라 배가 튀어 나온 자세가 돼버린다. 그런형태로는 잠들기가 피로와서 몇번이나 몸을 뒤척거리므로 안면이 방해된다.

부드러운 잠자리에서 자면 자세가 V자 모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떠올라서 W자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다는 것이 인간공학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니까 잠자리는 북어가죽처럼 강한 탄력이 있어야 하며, 침대는 스프링이 견고한 것이어야한다. 침대의 쿠션성에 따라, 자는 자세는 아무렇게나 변하게 마련이니까.

자는 자세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하여 딱딱한 판자를 놓아보면 등뼈의 굴곡은 2cm정도가 된다. 자는 자세로서는 이상적이요 이것이 이른바 서구식 건강법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지만 딱딱한 판자에서는 잠을 자기가 거북하며 몸을 뒤척이기도 어렵다.

등이 아파서 안면이 방해된다. 그렇다고 잠자리를 부드럽게 하면 할수록 배가 나온다. 이처럼 상반된 두가지 요구를 아울러 만족시키는 것이 쿠션의 구실이다.

침대는 쿠션이 부드러우면 고급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몸의 받침이 든든하지 않으면 무의식중에 근육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고 있어도 피곤하다. 그런 침대를 「뼈없는 침대」라고 일컫는다.

베개의 높이는 6~8cm가 이상적이라는 것이 여태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본 결론이다. 그러나 이수치는 누워 있을때 등과 궁둥이를 잇는 선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베개자체의 높이와는 다르다.

부드러운 침대에 누웠을 때는 몸이 가라앉지 않으므로 그보다 높아야 한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에 피가 올라와서 안면이 방해되고 너모 높아도 목의 근육에 무리가 주어진다.

잠시 눕기에는 높은 베개가 편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낮은 베개가 좋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⑨

첫 부 임(고삿갓)

고마태오(종욱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고삿갓의 노래는 다음과같다.

▪한손에 십자가들고 방랑 백만리, 기다리는 사람없는 이나라 저나라로, 주(主)를 찾아 헤매인지 어언수년간 오늘도 정착없이 살아가는 고삿갓.

사랑도 싫던가요, 가정을 등지고, 고향떠난 십여년에 청춘만 다갔구나, 그옛날의 이상하나 실현도 못해놓고 술한잔에 컬컬대도 꿈에사는 고삿갓.

조국과 민족위해 신부가 되었건만 이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마음 외로워라. 제대위에 제물바쳐 천주께기구하며, 고향땅의 별하늘을 그리워하는 고삿갓.

고향이 따로있나, 정들면 고향이지, 우주를 조국삼고 이웃을 형제삼아, 골고다의 십자가를 내등에 짊어지고, 영생의 서광찾아 가고가는 고삿갓. ▪

일종의 신세타령인"고삿갓"을 이렇게 흥얼거리 니 울적하던 마음이 한결후련해 졌다. 차창에 스치는 바깥경치도 훨씬 밝아보였다. 어쩌다 내신세가 이렇게 되었나하며 지난날의 "애인"을 얼마쯤 그리워하던 심정도 나를 이끌 어주시는 주님의 섭리에따라 사제의길을 가고또 가리라는 굳은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영원을 찾아나선 이 인생길에서나도 나도 방랑하게 되는 인간의 삶이 재미있게 보이기까지 했다. "생(生)은 기(寄)요, 죽음은 귀(歸)니라"라고한 고인(古人)의 말이 뜻하는것은 인생이란 나그네 생활이다. 달리말하면인생이란 필시 영원을 찾아나선 방랑객이다. 그러나정처없이 떠도는 구름과같은 것이 인생은 아닐것이다. 우리인간에게는 목적이있다. 특히 우리들 그리 스도인에게는 도달해야할 영생이란 목적지가 있다. 이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에서인간은 필연적으로 방황하게될 것이며, 또 많은 역경도 겪으리라….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롭고 전능하신 손길이 또한 있으리라….

고삿갓의 노래가 주는 일종의 낭만과 감흥 속에 나는 모래알에 도착했다. 레몽 수사가 꾸어다 준 5달러에서 차표를 사고 남은 잔돈으로 나는 주교청까지 가는 버스표를 간신히 살 수 있었다. 그레고알 보좌주교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친절하게 맞아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자리를 권하면서 입을 열었다.

"태오 신부님, 오시느나 수고했소. 레제 추기경님을 통해 당신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소. 당신은 우선 보좌신부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다지요 ?"

"네, 그렇습니다. 제 동족을 위한 이민 사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부로서 겪어야 할 제반 기본적인 사목경험을 착실하게 하고 싶읍니다."

"좋은 생각이오. 신부의 본직은 본당 사목이니까…. 그런데 모래알에는 한국인이 그리 많지 않다면요 ?"

"약100명 정도로 보고 있읍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한국인에게 이민을 개방할 때 많은 한국인이 이민 오리라 믿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오 ?"

"현재 남한의 인구만도 3천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정부도 늦게나마 이민정책을 세워 젊은이들에게 이민을 장려하고 있읍니다. 현재 많은 한국인이 남미지역으로 이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곧 한국인에게 이민을 개방할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캐나다로 이민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보좌신부로서의 사목체험을 하고 싶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런데, 남한의 크기는 캐나다에 비해 어느 정도가 되나요 ?"

"퀘벡주의 6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 아주 작은 나라군요…. 그런데, 거기에 3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나요 ?"

그분은 놀라는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주교님,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불공평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님을 저는 보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인 빈부의 차이를 말하지 않더라도 각 민족의 인구밀도에 비해 지역 배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때로는 제 마음을 분노케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분이신 하느님을 온 인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읍니다."

"레제 추기경님께서 당신을 우리 대 교구에 받아들인 것도 바로 당신이 말한 교회의 그러한 사명 의식에서요. 우리 모래알대교구는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의 이민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이민의 나랍니다. 누구나 와서 캐나다를 「내조국」으로 삼고 살 수 있읍니다. 나도 이민의 후예입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 (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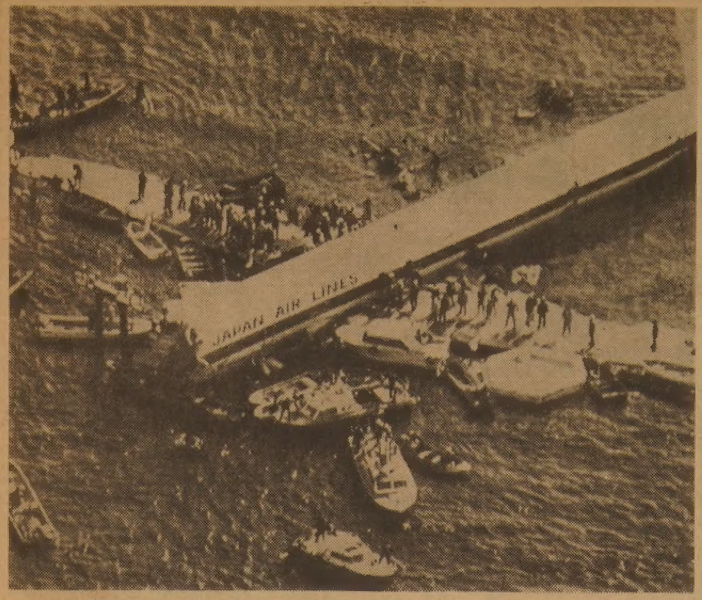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맛,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a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특별출연
기 간 :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 구 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1618



◇174명탄 바다위둥둥 조종사석등 기체앞부분이 떨어져나간채 東京灣바다위에 주저앉은 JAL국내선· DC8여객기。기체양쪽날개와 구명선위에 구조대원들이 몰려있다。【日本讀賣新聞제공=東京支社局】

日 이번엔 旅客機 바다墜落

어제아침 잇단 大型惨事… 24명死亡

JAL國內線 하네다 着陸하다

한국人1명 負傷、百47명重輕傷

【東京9日=宋孝彬특파원】 일본항공(JAL) 국내선DC8機 61型 여객기가 9일 상오8시45분께 하네다(羽田)공항착륙에 실패, 활주로에서 3백m떨어진 東京灣 바다에 추락, 승무원과 승객 1백74명중 24명이죽고 1백4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탑승객중 한국인으로는 尹澤熙씨(39·KAL福岡지점차장)가 있었으나 가벼운 부상만을 입은채 구조됐다。

1백66명의 승객과 8명의 승무원(기장 片桐淸二·35)등 1백74명을 태우고 상오7시25분 후쿠오까(福岡)를 떠나온 이 여객기는 하네다공항에 착륙키위해 활주로에 하강중이었으나 바다에 뻗쳐있는 유도등대에 여객기의 바퀴가 부딪쳐 기수가 떨어져 나가면서 방향을 잡지못해 그대로 바다속으로 빠졌다。

일본운수성과 경시청은 일기가 순조롭고 시계가 밝아 비행기착륙에는아무런불편이 없는 기상조건이었음으로 ①엔진고장 ②조종잘못 ③날개부분이상 등으로 추측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동기의 기장 가다기리는 이날 상오8시20분께 지바(千葉)현 기사라쓰(木更津) 8㎞지점 상공에서 기장이 공항의 관제탑에『상오8시45분 정상적으로 착륙한다』는 무선연락을한뒤 다른 교신없이 사고를 냈다。

사고당시 공항주변 기상태는 북풍이 시속약7m의쾌청한 날씨로 비행기착륙에좋은 기상조건이었음에도 갑자기 고도가 급강하한 원인에 관해 운수성과 경시청은 집중적인 조사를 펴고있다。

사고를낸 이JAL機는 길이 1천46m의 C활주로에 착륙하려다 기체중간쯤이 있는 부근부터 바다쪽으로 급강하하여 30m간격으로 세워진 유도등대 네개를 부러뜨리고 기수10m부근이 떨어져 추락했다。

가다기리 기장은 중상을입어 한때 사망한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생하여 慈惠의대병원에 입원가료중이다。

부상자 1백47명중 기장을 비롯한 77명이 중상을입고 70명이 경상을 입었다。

社告

올리베이라招請 바이얼린獨奏會

神技 弦의魔術師

3월6일下午7시 世宗文化會館

◇레퍼터리

모차르트 바이얼린 소나타 K379

R·슈트라우스 바이얼린 소나타Op.18

베토벤 바이얼린 소나타 Op.12

마티논 소나티네 No.5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회원권 예매합니다

S석 10,000원
A석 7,000원
B석 5,000원
C석 3,000원
(문예진흥기금포함)

◇예 매 처

본사사업부 722-1472 1575
대한음악사 776-0577
종로서적 722-2331
세고비아기타 724-6161
광생약국 362-7372
교보문고 725-6151
이태백안경 778-5103
세종문화회관 722-2721
삼익피아노 778-1117
중앙악기사 261-7900

한국일보社

근로자 한職場 평균勤續 2·8年

企劃院、社會統計조사 연간離職率 4.8%

家口當 月平均소득 21만원

管理職이 技術職보다 우대

하루9시간 週51·6시간 근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한직장 평균근속연수는 2·8년에 불과하고 연간 이직률은 4·8%에 이른다。 직종별 임금격차도 엄청나서 행정관리직은 전직종 평균임금의 2·9배、전문기술직은 1·8배로 관리직이 기술직보다 크게 우대받는데다 농사를 짓거나 판매、서비스、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균임금의 60~70%수준에 불과하다。

경제기획원이 80년을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2만3천여가구를 표본추출、실시한 사회통계조사를 토대로 작성한「81년도 한국의사회지표」에 따르면 남자근로자의 근속연수는 3·4년인데 비해 그나마 여자의경우는 2년으로 더욱짧고 이직률도 5년전인 75년의 3·7%보다 1·1%포인트가 오히려 높아졌다。

근로자의 週當평균근로시간은 51·6시간이며 이중제조업은 53·1시간으로 가장 높아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평균 9시간가까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가구當 월평균소득은 80년말현재 21만1천43원인데 이중 10·1%에 해당하는 2만1천3백30원은 家口主아닌 부인이나 子女들이 벌어들인 가계수입이었으며 이같은 副次소득비율은 75년이래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75년이래 근로자의 名目임금은 3·826배가 올랐지만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2·213배나 올라버려 실질임금은 1·73배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았는데 광공업이나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종사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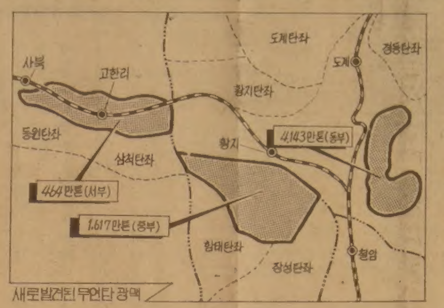
근로자들은 직업선택에서 급여액수준과 직장의 안정성을 가장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조사대상자의 48·4%가 收入、26·7%가 안정성이 동기가되었고 13·7%가 발전성、6·6%가 보람、4·6%가 명성과 명예때문이라고 직장선택의 동기를 밝혔다。

반면 직업에대한 만족도는 전문기술직、행정관리직、사무직이 비교적 높고 판매、서비스、생산직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전문기술직의 경우 자기직업에 7·8%가 매우 만족、63·9%는 만족、23·9%가 보통이고 4·4%가 불만족인데 비해 생산근로직은 0·9%가 매우만족、25·6%가 만족、53·2%가 보통이며 불만족이 20·8%로 높게 나타났다。

또 80년말현재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수는 모두 3만8천1백76개、종사근로자수는 2백97만4천4백명이며 이중 근로자 3백명이상의 대기업종사근로자수가 45·9%인 1백36만4천명을 차지했다。

임금수준을 직종별 평균으로보면 전직종평균이 17만3천1백50원인데 비해 전문기술직은 32만1천5백30원、행정관리직은 51만7천4백32원이고 농림·수산업은 14만4천4백26원、생산직은 13만8백40원수준이다。

한편 74년부터 도시근로자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했던 농촌가구 소득이 78년부터 다시 逆轉되어 78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98·3%、79년 84·7%、80년 84%식으로 계속 악화되고있는 추세를 보였다。



새로발견된 무연탄 광맥

대규모 高質石炭層 발견

江原道서 매장량6천2백24만톤 예상

慶北선 6백30톤매장 鉛·亞鉛鑛 발견

江原道太白市와 舍北道溪邑등 3곳에서 국내연간 총석탄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예상매장량 6천2백24만톤의 대규모 高質石炭層이 발견됐다。

또한 慶北 奉化·蔚珍지구에서 국내연간수요의 4배에 달하는 예상매장량 6백30톤의 高品位 鉛·亞鉛鑛도 발견됐다。

大韓鑛業振興公社는 지난해 이지역에 대해 8개孔 7천6백30m를 시추한결과 국내평균탄폭 2m보다 훨씬넘은 2~19m、熱量이 6천칼로리에 해당하는 석탄층을 발견했다고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석탄층은 해방후 발견된중 최대규모로서 안전 가채량을 상기준인 28%로 볼경우 잠재가치가 6천5백억원、연간1백만톤씩의 석탄증산효과를 기대할수있다는것이다。

三陟炭田은 연간 국내생산량의 68%인 1천2백만톤을 생산하는 국내최대의 炭田으로 ▲東部지구(三陟郡道溪邑)에서 4천1백43만톤 ▲中部지구(三陟郡舍北邑)에서 1천6백17만톤 ▲西部지구(旌善郡舍北邑)에서 4백64만톤등 총예상매장량 6천2백24만톤의 석탄층을 발견한 것이다。

鑛振公은 경북울진과 봉화지구에 38개孔 1만1천m의 試錐探鑛을 실시한결과 脈幅 5~12m 품위 20%의 鑛體를 발견했는데 選鑛을하면 80%에 달하는 高品質이며 매장량은 약 6백30만톤、잠재가치 5백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韓·日 政財界首腦 연쇄접촉經協협의

【東京9日=聯】 韓日양국政財界의 수뇌급인사들이 2、3、4월에 걸쳐 잇달아 만나 60억달러 經協문제를 둘러싼 민간레벨의 협력방안을 검토할 예정인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9일 오는15、16일동안 朴泰俊韓日經濟협회회장과 나가노·시게오(永野重雄)日商工회의소회장등 양국 財界수뇌가 도쿄에서 회담하는것을 비롯、3월에는 韓日협력위원회(회장 金永善전駐日대사)와 日韓협력위원회(기시·노부스케=岸信介전수상)의 합동회의가、그리고 4월에는 민간합동경제위원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일련의 접촉을통해 양국 政財界인사들은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60억달러經協문제를 협의할것으로 보인다。

오는 15、16일의 財界수뇌회담에는 한국측에서 朴泰俊회장 鄭周永全經聯회장 鄭壽昌상공회의소회장 柳琦諄중소기업회장등이、日측에서 나가노日商工회의소회장 오오쓰끼·분베이日經聯회장 미나까미·다쓰조(水上達三)日무역회회장등이참석한다。

또한 3월의 양국협력합동위원회에는 양측에서 政財界인사 50여명이 참석할것으로 전해졌다。

火災예방대책 점검

劉총리 閣議서지시

劉彰順국무총리는 9일하오 국무회의에서『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大型화재사고는 화재예방의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전 객업소를 비롯한 고층건물의 소방장비와화재예방대책에관한 한일제점검을실시하고그에따른조치를취하라고지시했다。

劉총리는 또『각部處는 산하기관과 소속단체에대한 화재예방대책과 장비보강등 자체 화재예방에관한 對國민계몽을 적극실시토록하라』고 아울러 당부했다。

盧外務 4개국 巡訪

14일出國 佛·印度·스리랑카·나이지리아

盧信永외무장관이 프랑스、印度、스리랑카、나이지리아등 4개국을 공식방문하기 위해 오는 14일 출국한다고 9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盧장관은 2주간의 巡訪기간중 방문국의 국가원수와 외상을 포함한 정부고위인사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국제정세전반과 쌍무적협력문제를 협의한후 오는 28일 귀국한다。

盧장관은 특히 프랑스방문중 미테랑 대통령、모로와수상、세이송外相등 佛정부고위인사들과 연쇄적인 접촉을갖고 한국정부의 平和통일방안과 이의실현을위한 프랑스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것으로 보인다。

盧장관의 訪佛은 특히 최근 거론되기시작한 全斗煥대통령의 訪佛및 韓佛頂上회담說과 관련、이를위한 韓佛外相간의 사전접촉일수도있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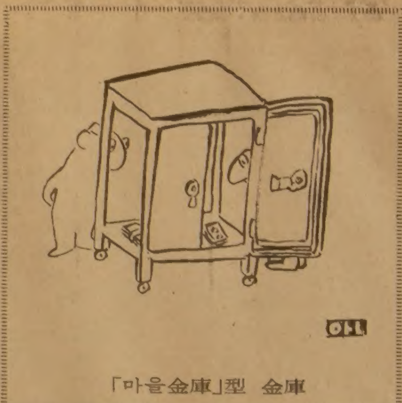
盧장관은 巡訪기간중인도의 뉴델리와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 기착、현지에서 열리는 공관장회의를 주재할예정인데 뉴델리會議에는 亞·中東지역 주재공관장 27명이、라고스會議에는 아프리카및 中南美지역 공관장22명이 각각 참석한다。

盧장관의 巡訪일정은 다음과같다。

▲14일=出國▲15~17일=프랑스방문▲18~20일=印度방문▲21~23일=스리랑카방문▲24~26일=나이지리아방문▲28일=귀국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会漫評



「마을金庫」型 金庫

地平線

東京 뉴저팬호텔의 火災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32명이 사망한 사건은 11년전의 大然閣사건을 잊지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당시의 惡夢을 되살려준다。

▼세계 호텔火災사상 최대사고였던 大然閣 死亡者는 1백65명、그중외국인 死亡者 13명、財産피해 9億원에 保險金만도 15억원이나 됐다。 그 화재당시 죽은 일본사람이 8명인데 공교롭게도 뉴저팬호텔에서 희생된 한국인도 8명이다。 이번 뉴저팬호텔화재는 인명피해가 大然閣화재보다는 적지만 經濟大國인 일본、그것도 수도 東京의 한복판 번화가에서 발생한 高層호텔의 大火災인 만큼 많은문제점을 일깨워주고있다。 또고층건물이 즐비한 서울시민들에게 남의얘기만은 아니겠다。

▼투숙객이 모두 잠든 새벽 3시에 불은 났지만 연소장소가 9·10두층에 국한됐는데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게한 사실에 화재전문가들은 놀라고 있다。 내외에 알려진 일류호텔인데도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화재차단시설이 없었으며 비상구가 막혔다。 게다가 건물내부마저 복잡해서 迷宮처럼 캄캄한 가운데를 숙박객들이 우왕좌왕하다 질식사한것이다。 살아남은 한국인투숙객은 세계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호텔시설이 이렇게 엉망인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대연각호텔 화재이후 일본관광객들은 한국호텔을 어떻게믿나며 차라리 단층여관이 안전하다고 거들을피운일까지 있었는데 일본의호텔시설역시 엉망인것이 드러난 셈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제아침에는 일본항공 여객기가 東京灣바다에 추락、1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잇달아 생겼다。다행히 한국인은 포함돼있는것 같지는 않지만 海外나들이 하는 사람들에게 조바심을주고도 남는 사건들이다。뉴저팬 호텔화재로 객지에서 날벼락을맞은 희생자들이나 생존자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성의있는 보상을 서둘러줄것을 기대하는한편、국내의 호텔시설점검도 이기회에 다시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성탄절 아침인 71년12월25일 大然閣화재로 救助헬리콥터가 뜨고、매트리스를 던져 그 위에「落花」처럼 投身하고、시트를 로프로 삼아 내려오는등 煉獄을 방불케한 때 지나가던 한 女人이 밧줄을구해 8층으로 올려줘 스무목숨을 살려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기도한다。오늘의 대서울에도 그때의 大然閣、뉴저팬호텔 같이 안전시설을 못갖춘 고층건물이 남아있을성 싶다。우리 항공기라고 사고가 없으란 법도 없다。대안의불로 보지말고 자기일로 여기는데서사고를 미리막을수있는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KAWAI 피아노 인벤토리 대매출 기간 : 2월27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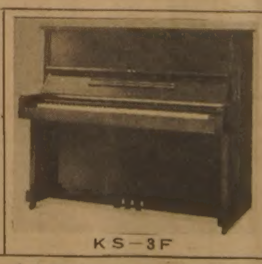
⊙본사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특별무이자 할부판매 (6개월한도내)를 단행했읍니다.

⊙은행대출알선이(1년-3년) 가능합니다

UPRIGHT 피아노

802-1
$3,995(Reg) $3,395(Spec)

802-M
$3,995(Reg) $3,395(Spec)



KS-3F
$4,595(Reg) $3,900(Spec)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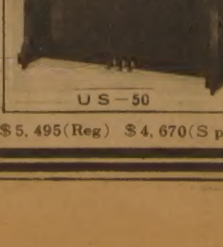
KG-3

전자올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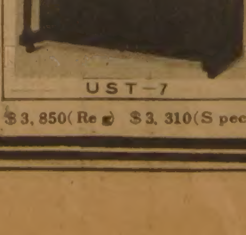
E-620

E-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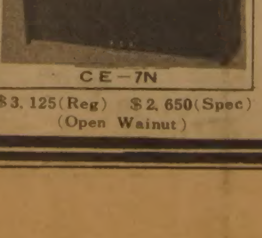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US-50
$5,495(Reg) $4,670(Spec)



UST-7
$3,850(Reg) $3,310(Spec)



CE-7N
$3,125(Reg) $2,650(Spec)
(Open Walnut)

GS-30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2>

軍政에서 民政으로 ②

記者도 놀라 볼펜놓쳐

63년3월16일 하오4시4분。국가再建最高會議(현 경제기획원 건물) 3층 본회의장에 朴正熙 최고회의의장이 굳은얼굴로 李周一부의장및 7개분과위원장들과 함께 들어섰다。『중대 발표가 있다』는 통보만을 받고 달려온 1백여명의 內外기자들을 한번 둘러본 朴의장은 또박또박 미리준비한 성명문을 읽어내려갔다。

朴의장이 성명문을 낭독하는동안 배석한 최고위원들과 보도진들은 기침소리까지 죽여가며 성명문을 받아쓰거나 경청하고있었다。이 침묵은 朴의장이『本人은 앞으로 약 4년간 軍政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그可否를 국민투표에 附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결심하였다』고 읽는순간 깨어졌다。

보도진속에서 갑자기『언』하는 놀라움과 함께 볼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場內를 울린것이다。당시 출입기자였던 I신문의 徐章植기자가 성명의 중대성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 볼펜을 떨어뜨린것이다。

朴의장은 이어 아랑곳하지않고 예의 야무지고 낭랑한 목소리로 2천2백여자에 달하는 성명문낭독을 10분만에 마친후 퇴장했다。그후 얼마뒤 徐기자는 뚜렷한 이유없이 I신문사를 그만둬 분분한 화제를 남기도했었다。

이른바 軍政연장 소동을 낳은「3·16성명」은 군사정부가 기회있을때마다 외쳐왔던 民政移讓공약을 정면으로거부、違約한것이다。군사정부는 혁명公約에서『…과업이 완성되면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었고 朴의장은 61년8월12일의「8·12성명」에서『63년5월 총선을거쳐 정권이양을 하겠다』고 公言했었다。

그후에도『民政이양을 약속대로 지키겠다』(62·1·22)『혁명목표가 未達돼도 정권이양공약을 실천하겠다』(62·2·20)고 천명했고 그해 12월27일에는▲63년1월1일부터 정치활동허용▲4월초 대통령선거▲5월하순 국회의원선거▲8월중순 정권이양을 선언했다。

또 63년2월18일에는 政局수습을 위한 성명을통해 자신의 民政不參과 5월總選을 다짐했으며 27일에는 서울시민회관에서 정계、관계、군부지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린「政局收拾 선서식」에서「民政不參」과「政治활동금지 전면해제」를 선서했었다。

모든국민들이 이같은 정부의公約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는 시기에 느닷없이「軍政延長」과「정치활동금지」라는 폭탄선언이 정치활동再開 3개월만에 터져나왔으니 보도진뿐 아니라 모두가 깜짝 놀랄수밖에 없었다。

軍政연장선언은 한마디로 한참 홍두깨이자 民政에 부푼기대에 물을 끼얹은격이었다。이로부터 政局은 3·16성명을 수습하는 4·8성명(軍政연장 국민투표연기)이 나올때까지 혼란과 昏迷를 極의 달렸다。

"軍政 4年연장" 爆彈선언 「飜意에 또 飜意」 시대로

革命主體간에 심각한 分裂·暗鬪

組織싸고 JP派와 反對派 등장

最高委員들까지 놀라…戒嚴선포엔 國防長官이 反對

◇혁명정부가 스스로 公約을어기고 軍政연장을 선언하자 국내외로부터 거센반발을 받았다。사진은 3·16선언직후 청와대뜰에서베푼 外交團리셉션에서 朴正熙의장이 버거美대사와 환담하고있는장면。㊧는 曺相鎬儀典비서관(現대한체육회장)。

이날 성명발표가 끝난뒤 최고회의 洪鍾哲 文社위원장은『여보시오、어떻소。빅·뉴스지요』라고기자들에게 농담을 걸었고 李厚洛공보실장은『성명文案이 어떠냐』고 시치미를 뗐지만『軍政연장선언』이나오게된 배경과 동기는 간단한 농담으로 풀이할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집권세력간의 암투와 四分五裂된 野黨街의 혼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집권층의 內紛과 暗鬪는「3·16성명」이 있기 훨씬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5·16혁명후 최고회의가 구성되고 몇차례의 위기를넘긴 혁명정부는 그런대로 오손도손발을 맞춰 國政을요리하는것처럼보였다。그러나 63년1월의 정치활동허용을 앞두고 최고회의내에서는 요란한소리가 들리기시작했다。62년말 사전조직된共和黨의모습이 알려지자대다수의 최고위원들은 분노와위기를 느낀것이다。

8期生들도 兩分상태

民政이 시작된뒤 大勢를 金鍾泌씨가 사전조직한 공화당이 장악하게될경우『우리는어떻게 되느냐』는우려였다。따라서최고회의는 吉在號·洪鍾哲·金炯旭·玉昌鎬·金鍾泌씨등 陸士8期를 주축으로한 金鍾泌씨측과 나머지 反金세력으로갈리어 점차 銳角으로맞서 기시작했다。정치권력내부에서 살아남기위한自活의움직임이 권력의 向方을 모호하게만들었던 시기였다。또「우리가 혁명주체」란강한 自意識이 더욱예측불허의상태를 유발한면도 다분히있었다。

당시극심했던 혁명주체들간의 反目의 一例를 들어보자。金鍾泌씨가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되자 양파는 각각 자기사람을 그자리에 앉히기위해 맹렬한 경쟁을 벌였다。JP측은 金炯旭최고위원을、反JP派는 金在春최고위원을 후임자로 내세운 이권력다툼에 질린 朴의장은 中道派였던 金容珣최고위원을 2代 中情부장으로 임명했다。2代 金부장은 한달반만에 물러나고 反JP派의 金在春최고위원이 3代부장이되었으나 軍政연장선언을 겪고 또 소위「汎韓」으로 불리는 汎국민정당을 만드는데 한몫을 차지했지만 朴의장이 共和黨이란 말을 타고 民政參與를 결심하게되자 5개월만에 金炯旭에게 中情부장을 물려줬다。

당시최고위원을지낸K씨(6·9代의원)의 증언。

『공화당사전조직때문에 참으로 시끄러웠어요。같이 혁명했는데 너희들(JP系)혼자만 몰래 民政주도권을 잡기위해 당을만들수있겠느냐고 펄펄뛴것이지요。한도 반혁과 질시가 심해지자 그러면 최고위원 몇명이 공화당에 들어가 사실을 알아보자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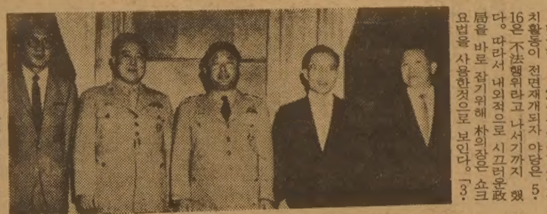
이때가 63년1월초였고 이논의에 따라 民政이양과함께 現實참여의뜻을 가졌던 金東河、金在春、吳定根、李錫濟、姜尙郁 최고위원5명이 일계급승진과 동시 豫編발령을 받고 공화당창당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전조직된 黨主流에 밀려 일부는 탈당했다。이와함께 최고회의내에서도 손발이 맞지않은 세력다툼으로 朴圓彬、吳致成、鄭世雄씨등이 최고위원직을 물러나는 연쇄파동이 일어났고 勢에서 밀린 이들은 5월同志會를 결성、汎국민정당을 만들기위해 노력했었다。이는 물론 3·16성명 훨씬후의 일이지만 당시의 사정을 알수있는 실례이다。

野선 5·16自體를 否定

이렇듯 혁명주체간의 불화가 격심한 상태에있을때 재건을 외친 野黨街도 尹潽善、許政、張澤相、朴順天、金俊淵、李範奭등이 各人各色의 꿈을가지고 野黨勢를 쪼개고있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더구나 2·27선서 다음날부터 정치활동이 전면재개되자 야당은 5·16은 不法행위라고 나서기까지 했다。따라서 내외적으로 시끄러운 政局을 바로 잡기위해 朴의장은 쇼크요법을 사용한것으로 보인다。



◇3·16성명이 나온직후 어느날 革命主體들이 저녁을 들기위해 청와대에 모였다。㊧로부터 金炯旭·李錫濟·李周一·姜起千 최고위원과 李東元당시 대통령권한代行비서실장(前외무장관)。

「3·16성명」당시 최고회의 財經委員長이었던 柳陽洙씨(前 動資部장관·現 東亞건설회장)는『당시 나는정치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지만「3·16성명」이 나오게된것은 안팎의 혼란을 극복하기위한 충격요법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軍政延長이란 強硬策으로 政局을 안정시키고 혁명의 임무를 완수해야겠다는 결의의 표시라는 것이다。

朴의장의 이러한 강경책은 이미 이전에 조짐이 보였다。朴의장은「3·16성명」이 있기전인 같은달 7일 原州 軍부대를 시찰하면서 훈시를통해『국민에게 害毒을끼친 舊政治人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3월11일 朴林恒중장、金東河 전 최고위원이 관련됐다고 당국이발표한 군일부의 쿠데타음모사건도「3·16성명」이 나오는데 명분으로활용했다는 해석도있다。또 3월12일저녁7시 ○○군장교 수십명이 奬忠洞공관으로 朴의장을 찾아가『民政에 참여하거나 軍政을연장해달라』는 건의를 한사실도「3·16선언」의 배경중의 하나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증언을 합쳐보면「3·16성명」은 이 모든 원인을 방편으로하여 혼란에 젖어든 政局의 수습책으로 등장한것으로 보여진다。

경악한 報道陣에 "聲明文案 어떠냐" "빅·뉴스지" 농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軍政연장선언」의 아이디어 제공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구구한 말이 많았으나 지금도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고있다。당시의 소문으로는 中情의 중요직책을 맡고있으며 議長공관을 무상으로 출입했던 C모씨와 朴의장의 大邱師範동창인 H모씨가 朴의장에게 提言했을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후 C모씨는 張太和씨(전S신문사장)、H모씨는 黃龍珠씨(전釜山MBC사장)로 밝혀졌지만 두사람은 모두 이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6·9代의원)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자。『당시 張太和씨를 중심으로한 일단의 사람들이 朴의장에게 軍政延長아이디어를 재공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확인할수는 없었어요』이에대해 K씨(10代의원·당시 언론인)는『軍政연장 파동이 끝난후 누가 張씨에게 이사실을 물었더니「전혀 事實無根이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하더군요』라며『사실이든 아니든 張씨는 朴의장과 꽤 밀접한관계가 있었다』고말했다。

최고회의가 아닌 딴곳에서「軍政延長선언」의 策謀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언이 또있다。柳陽洙씨의 얘기。『3·16성명발표가 있기 몇시간전 갑자기 최고회의 전체회의가 소집되었어요。이자리에서 내용브리핑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나뿐만 아니고 많은 최고위원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柳씨의 얘기를 빌면 民政移讓에 대한「2·18선언」후 모든 작업이 그방향으로 진행되는것으로 믿었는데 느닷없이 軍政延長이란 새로운 사실이 터져나왔다는것이다。

柳씨는『당시 최고위원들의 표정은 한마디로 긴장되어 있었고 일부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었지만 정확하게 누가 반대를 했는지 기억할수 없다』고 말하고있다。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든간에 朴의장은 문제에대해일부최고위원및金在春中情부장등과 논의한 사실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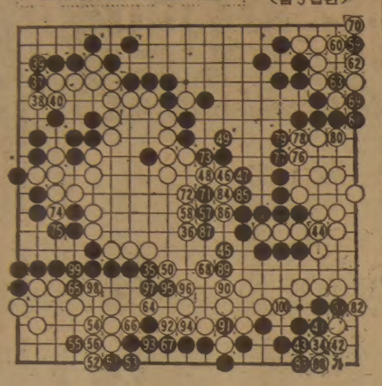
朴의장은 3월13일저녁 奬忠洞의장공관으로 최고회의의 姜起千법사위원장、金炯旭운영기획위원장、金容珣내무위원장등을 비롯한 몇명의최고위원들과 朴炳權국방부장관、金在春中情부장、申稙秀의장법률고문등을 불렀다。

먼저 논의했던것이 비상계엄령선포案。이때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혼란의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계엄령을 다시 선포해야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主務장관인 朴국방이 계엄령선포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特別取材班】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 第7譜 134～200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姜哲民〈0勝3敗〉
黑(4段) 鄭壽鉉〈1勝2敗〉

우하귀를 白34로 모해들어간 수는 최대의 끝내기였다。

그러나 전체형세는 아무리 따져보아도 黑이 우세。나중의 일이지만 상측일대의 黑집이 85까지 줄어들었어도 무려 60집가량이나 되니 차가 너무크다。더구나 지금은 끝내기단계인데 승부수를 던져볼 곳도 없고 게다가 黑이 선수마저 잡고있었다。

그러니까 黑은 부자몸조심 격으로 또혹은 보통끝내기만 해가면 되는것이다。黑35로 밀어붙은 수가 그런뜻의 자중수。비록 白에게 36쪽 경계선을 다지게 하더라도 그대신 좌상귀를 黑37、39로 젖혀이어서 피장파장이란 계산이다。

다시 우하귀를 41에서 43으로 쪽막은것도 여유를 보이는 안전운행。나머지 잔끝내기에서 실수를 할래야 할곳도 없고하니 예서부터는 끈기로 유명한 姜6단에게 덜미만 안잡히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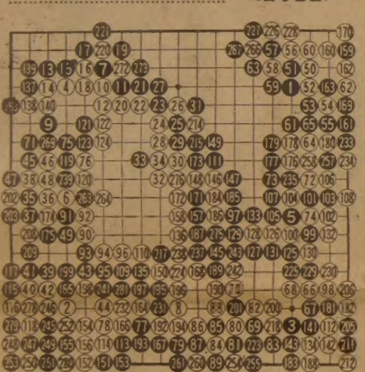
白、던질곳을 찾으며

姜6단은『아무래도 부족한걸』하면서도 집차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다했다。白44로 3점을 잇고 黑45를 응수시키더니 白46、48、이욱고 白50에 젖혀 중앙에 20여집을 확보했다。그러나 아직도 집부족。

그런데 이에앞서 白54는 한집이라도 득을 보자는 지킴수이지만 뒷맛이 고약해서 黑55로 들여다본 수로 인하여 끝판에가서 패가나게된다。승부에는 무관하기에 총보로 미루거니와 姜6단은 실상 반면 10집가량의 부족을 어쩌지 못할줄알고 굳이 던질곳을 찾았던 것이다。【一凡】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總譜283手完 黑不計勝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姜哲民〈0勝4敗〉
黑(4段) 鄭壽鉉〈2勝2敗〉

끝판에서 일어난 파란은 승부에는 무관한 것이지만 黑151、153에 대하여 白154를 155자리 혹은 156자리에 두지않은 탓에 우선 黑155를 당했다。그리고 나중에가서 白250을 280자리에 올해 두면 무사하지만 어차피 진 바둑이라서 욕심을 기한 것이었다。

여하간 이로써 姜6단은 불운하게도 4패。이젠 시드組에서 탈락이 확정되고 말았다。

한편 鄭4단은 1승을 더 보태서 2승2패 반반의 전적。시드組에 잔류하려면 나머지 2국을 전승해야 되는 입장인데 올해 첫선을 보인 그가 과연 어떻게 난관을 벗어날는지 궁금하다。

이 바둑은 姜6단이 여전히 대세를 펴서 좌측일대가 광대해졌으나 白32와 36 단2수가 때이른 고전을 불렀다。

鄭4段 快勝의 譜

白32는 173자리에 뻗어야 했고 36은 여러가지중에서 하필 가장 불리한 수단을 골랐다。이로 인해 대세에 뒤져서 사뭇 고전이었다。

黑은 73이 방향착오였고 79가 허약했으며 101、103의 先投資가 손해여서 한때 白의추격을 받았지만 끝마무리에서 기민한 수법을 발휘하여 낙승했다。

144…99。191…85。204…80。207…201。210…80。213…201。216…80。219…201。222…80。236…101。240…84。244…85。256…250。259…253。262…250。265…253。268…250。270…263。271…253。274…250。277…253。282…248。

소비시간 白2·30。黑2·50。【一凡】

현명한 광고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광고문의는 533-2361

임송학 태권도 도장 2주년

RIM'S TAEKWON—DO SCHOOL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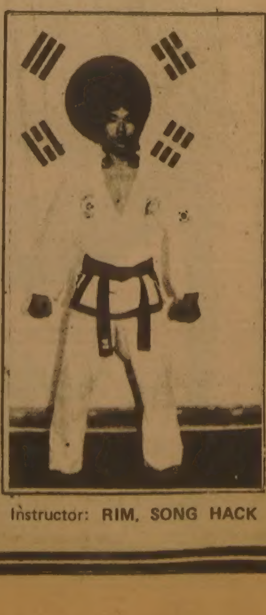
(79년 C.N.E.시범경기광경)

개업 2주년 특별봉사

- 자신감 배양
- 호신술 연마
- 튼튼한 체력연마및 인격도야
- 한국인의 긍지 함양

※교포자녀들에 한해 특별할인회비

1963 WESTON RD.
(Weston & Lawrence) Loblaws 앞.
전화 : 247—7577 임송학



Instructor: RIM, SONG HACK

油價인하·減産단행 예상

OPEC、곧 緊急閣僚會議 소집

在庫累增 해결책 모색

이란의 增産·投賣통고로 큰衝擊

【아부다비8日AP=聯合】 국제원유시장의 공급과잉과 재고누증으로 원유판매에 커다란 곤란을 겪고있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곧 긴급각료회의를 소집, 원유가 인하와 생산량의 대폭적인 감축을 단행할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8일 전했다.

한편 이라크와 장기전을 치르고있는 이란은 戰費조달을 위해 하루 2백50만배럴을 추가생산, 국제시장에 投賣할 것임을 이미 OPEC회원국에 통고한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식통들은 이것이 국제원유가 하락의 기폭제가 될것으로 예측하고있다.

걸프통신은 이날 빈의 OPEC본부관리들의 말을인용, 이란이 이라크와의 지구전에 따른 전비염출을위해 금년도에 원유판매에서 1백90억달러의 재정수입을 필요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란이 현재 하루 70만배럴의 원유생산량을 3백20만배럴로 대폭 증가시킬 계획임을 의미하는것으로 이미 공급과잉에 시달리고있는 OPEC회원국에 또다른 일대 충격을 안겨주고있다.

이란의 원유덤핑계획이 전해지자 사우디를 비롯한 페르시아灣 산유국들은 사태수습차 오는 3월20일 예정도 된 OPEC 정기각료회의에 앞서 별도 회의를 긴급소집하기위한 접촉을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談笑중인 西獨·이집트 두頂上 西獨을 방문한 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 대통령 (왼쪽) 과 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 (오른쪽) 이 8일 회담에 들어가기전 담소하고있다. 【본8日AP特約=聯合】

이란駐在 西獨大使 피격
출근길 怪漢들狙擊…무사

【테헤란8日AP=聯合】 엔스·페터젠 이란 주재 서독대사(57)가 8일상오 승용차를 타고 대사관으로 향하던중 북부 테헤란의 한 고속도로상에서 무장괴한들로부터 30여발의 총탄세례를 받았으나 무사했다.

페터젠 대사는 사건발생후 AFP통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이 운전사및 한 서독시민과함께 대사관으로 출근하던중 2~3명의 무장괴한들로부터 약 1분간 공격을 받았으나 승용차가 방탄인데다 곧 의자밑으로 몸을 감췄기때문에 3명모두유리파편에 의한 가벼운찰과상만 입었을뿐 무사하다고 밝혔다.

유럽安保協회의
休會두달만에 마드리드서再開

【마드리드8日AP·로이터=聯合】 전세계 35개국 外相및 고위관리들이 참석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9일 폴란드사태의 거론여부를 둘러싸고 東西양진영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마드리드에서 재개된다.

2개월간의 긴휴회끝에 재개되는 이번회의에서는 폴란드사태를 거론, 맹렬하게 규탄하려는 西方진영과 이를 막으려는 소련권간에 회의전에 이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돼 회의가 예상외로 조기휴회의 긴냉각기를 맞게될지도 모른다.

"엘事態、美安保에 威脅"

헤이그會見 軍事力사용可能 배제안해

【뉴욕8日AP=聯合】 헤이그美국무장관은 8일 카리브海지역에서 美군사력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헤이그장관은 이날짜 뉴욕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카리브海지역에서 美군사력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있지않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같은 선택을 미리 포기해 버린다는것은 『미국의 중대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가도하는자들에게 길을 활짝열어주는결과가 될것』이라고 지적, 카리브해에서의 美군사력사용가능성을 완전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엘살바도르사태는 월남전과는 달리 『미국이 속해있는 서반구의 安保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있다』고 경고하면서 美政府가 엘살바도르 국가평의회에 사회개혁을 단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있다고 밝혔다.

中共、政府기구 대폭縮小계획
18명의副首相 2~3명으로

【홍콩8日AP=聯合】 중공은현國務院조직에서 18명의부수상을 2~3명으로 줄이고중앙정부관리주도 3분의1을 감원, 20만명으로 줄이는 대규모 정부기구축소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홍콩의 大公報가 8일 보도했다.

親中共系의 大公報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그같이 보도하면서 이 정부기구축소 계획이 『국가와 당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혁명적인』결정이라고 말했다.

大公報는 또 이정부기구축소계획에 따라 현고위관리들의 종신근무제가 폐지되고 각료급관리는 65세, 각부서의 국장급관리는 60세의 정년퇴직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比大統領사위〉 머노톡, 劇的구출

【마닐라9日AP=聯合】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딸과 지난해12월29일 비밀결혼한후 실종됐던 토미·머노톡씨(32)가 8일 필리핀軍에 의해 납치범들로부터 극적으로 구출됐다고 그레고리오·센다나공보상이 9일 발표했다.

센다나장관은 머노톡씨가 공산게릴라 출몰지역인 마닐라동부90㎞의 시에라·마드레산의 피납처에서 구출됐다고 전하고 특전대원들이 구출작전중 납치범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코스타리카 새大統領 國民解放黨 몽헤當選

【산호세(코스타리카)8日UPI=聯合】 7일 실시된 코스타리카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좌익 국민해방당의 루이스·알베르토·몽헤(56)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 새코스타리카 대통령에 당선됐다.

몽헤후보는 1백30만 유권자중 80%가 투표한 이번 대통령선거의 개표결과 64%를 획득했으며 집권세력인 4개정당연합의 라파엘·칼데론·푸르니에트(32) 후보는 26%를 획득, 이에 크게뒤진 차점에 머물렀다.

중미의 모범적 민주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위협해온경제위기에 대한 불만때문에야당후보에게 몰표를 던진것으로 분석된다.

中共、권고辭職선풍 高位層 2백여은퇴

【北京7日AP=聯合】 중공의 고위관리들이 국가업무의 효율화와 공무원감축을위한 趙紫陽수상의 사직권고에 따라 현직에서 물러나고있다고 人民日報가 7일 보도했다.

人民日報는 고위 관리들과 공장경영자들을 포함한 第三機械工業部의 관리 2백69명

外信알데바

◆破產레이커航空社救助실패 ‖ 파산직전의 레이커항공사를 구제하기위한 한캐나다은행의 인수협상이 8일 실패로 끝나고 영국정부가 금융지원거부방침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레이커항공사를 구출하려던 마지막 노력도 좌절됐다.

◆美·사우디國防相회담 ‖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7일 리야드에서 알둘·아지즈국방상과 회담을갖고 미·사우디간의 안보관계에 영향을미칠 제반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4배나 길어진 장장4시간의 이날회담내용은 즉각 알려지지않았는데 한 미관리는 두사람이 「매우 생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협의를가졌다고 전했다. 【리야드=聯】

◆佛共產黨당수 마르셰再選 ‖ 프랑스공산당은 7일 조르지·마르셰를 당수로 다시 선출하는 한편 동구『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지지를다짐하고 5일간의 黨대회를폐막했다. 【파리=AP】

메아리

대보름

8일은 음력 정월대보름으로 아침일찍 밤, 호두, 잣, 은행등 껍질이 딱딱한 열매로 부럼을 깨물며 한해동안 아무 탈을 만나지말고 모든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며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빌었다.

또 이날 이른 아침에는 귀가 밝아지고 한해동안 좋은 소식만 듣기를 바라는뜻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술을한잔씩 마시게 되는데 이것을 귀밝이술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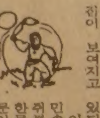
그런데 정월 대보름날의 여러 놀이 가운데서 역시 가장 뜻있고 정성이 깃들이는 행사는 달맞이다.

날이 어두워 지고 달이 동쪽 하늘에솟아 오를 무렵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모두가 횃불산으로 횃불을 밝히며 올라간다.

딴 사람 보다 먼저 동녘 하늘에 떠오르는 달을 맞아 횃불을 땅에 꽂고 두손을 모아서 마음 속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지기를 빌면 그뜻이 이루어 진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는 경향간에 달맞이를 비롯하여 대보름에 얽힌 여러 민속적놀이를 보기가 어렵게 되고 주로 민속경연대회 같은 행사에서 선을 보여 일상생활과의 사이에서는 괴리현상만 두드러 지게됐다.

더구나 사람들은 주로 경제성장에 마음이 휩려서 근대화작업을 서두는 통에 전통적인 세시풍속이나 민속놀이에는 아랑곳 하지않는 풍토와 우리 고유의 것이면 무턱 하찮다고여기던 생각이 없지 않았다. 이제 그에대한 반성이 사회 일각에서나마 일기 시작하여 근자에는 여기저기서 고유민속의 보생을 위한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



이번 대보름을 앞두고 용인민속촌에서 달맞이 다리밟기 쥐불놀이같은 잔치가 벌어지자 한문학잡지서는 30여명의 남녀문인을 초빙하여 행사에참가케 했으며 이 광경은 TV에서 소상하게 소개되기도 했다.

그 화면 가운데서 일흔의 원로문인이 다리 위에서 횃불을 밝혀들고 60년만의 처음이라며 흐뭇해하는 표정은 인상적 이었다.

가족제도가 바뀌고 사회도 도시화현상이 가속되어 이웃 사이가 서먹해지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민속의 회생을 새로운 인간관계의 정립을 위한 구심점으로 살을수 있게하는 방도의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어떤 對蘇戰에도 積極대응

美、「두개의전쟁」·「하나반戰爭」전략폐기

北傀軍 DMZ집중배치…基地 요새화

레이건 議會제출 보고

【워싱턴 8日=[illegible]특파원】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미국은 수개의 전선에서 소련침략이나 소련이 지원하는 침략에 맞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8일 레이건행정부가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한 연례국방보고서에서 밝혀 종래의 「두개의 전쟁」「하나반전쟁」 전략개념을 폐기하고 미국이 對蘇군사력 수세에서 적극 대응으로 변했다는 것을 천명했다.

소련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페르시아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소련침략에 맞서면서 쿠바 리비아 베트남 또는 소련의 동부아시아지역 영토에 반격을 가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미국방성 관리들이 말했다고 뉴욕 타임즈紙도 7일 보도했다.

83회계연도 미연례 국방보고서는 동북아시아함에서 태평양지역의 군사추세는 美·日·中共보다 소련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주한미군의 계속주둔및 (F) 현대화와 한국경제회복 촉진에 따른 5개년 한국군현대화계획으로 1990년까지에는 한반도에 한국이 유리한 군사균형을 차지하게 될것을 희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60년대후반이래 군사력을 거의 배가했으며 북한군사력의 상당부분이 비무장지대부근에 전진배치되고 이 DMZ부근에 육·해·공군의 군사시설을 요새화했으며 DMZ아래로 지하터널을 파고기습공격을감행할수있어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있다고 연례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이보고서는 한국의 착실한 군사력증강, 강한 경제발전및 미군의 한국주둔이 북한남침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말했다.

이보고서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태평양안전유지에 한 중요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지역의 미전진방위전략에 초석이 되고 있다고 밝혀 카터행정부때보다 일본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다.

그밖에 미연례국방보고서는 동북아시아함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소련은 베트남의 海·空軍기지사용으로 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투입능력을 증대했으며 중공에 큰위협을 주고있다. ▲60년대 중반이래 소련의 극동지상병력은 3·4배 증강된반면 태평양서의 미지상병력은 줄어들었다. ▲태평양서의 美전함 장수함수는 65년수준의 약 절반 정도다. ▲중공군은 숫적으로 우세하나 장비가 빈약하여 소련군사력증강에 맞서기 위해서는 현대무기가 필요하다. ▲미국전략이익에 수반되는 對중공무기및 기술판매는 동아시아에서 소련팽창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태평양지역의 핵균형은 소련에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한국은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군사력증강에 몰두한 북한과는 달리 그상당부분이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에 충당되었다.

論

레이건대통령은 평화시에 최고증가기록을 보인 82년도 국방예산 제출로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그의 공약을 뒷받침했다.

레이건대통령은 83년도 국방예산은 9월로 끝나는 현행예산보다 4백34억달러나 많은 2천5백75억 달러에 이른다.

세금은 대폭 삭감되고 사회보장정책비용도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나 국방비만은 이처럼 대폭 증가되었다.

국방비의 대폭증가와함께 미군사전략도 변화되고있다. 미국이 75년 베트남서 철수한이래 세계 개입 전략도 축소되었으나 레이건정부가 실질적으로 처음 의회에내놓은 국방예산을 통해 「세계국가」로 다시 발돋움한다는 것을 밝혔다.

「強力한 美國」뒷받침

國防예산 2천5백75억弗의 用途

"세계속의 「消防手」되겠다"

北傀의 南侵땐 맞서면서 蘇취약 지역攻擊

亞洲·中美圈서 적극대응

레이건대통령은 6일 의회에 보낸예산교서에서 『현재의 미기동력을 유럽, 한국, 페르시아만등에서의 군사침략에 효과적으로 맞설수있는 빠르고도 충분한 전투및 전투지원부대를 수송할 수 없다』고 밝히고 「公海병력수송능력을 증가할것이라고 말했다.

50년대와 60년대 초반의 경우처럼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했던 시대로 되돌아 갈수야 없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을끄는 「소방수」가 되겠다는 뜻을 레이건행정부는 밝히고 있다.

와인버거국방장관은 종래의 미국의 군사전략개념이 되어온 「2개의 전쟁」또는 「하나반전쟁」은 잘못되어 있으며 폐기되어야한다고 8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국방보고서에서 말했다.

「2개의 전쟁」전략은 미국이 중공과 화해하기전인 60년에 中蘇와 동시에 2개의 큰전쟁에 대처한다는 것이며 「하나반전쟁」 전략은중공과 화해하고 베트남서철수한후 소련과의 대전쟁과 다른하나의 국지전쟁(반전쟁)을 치룰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다는 전략개념이다.

레이건행정부가 채택한 머군사전략의 변화는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면 한반도에서 이에 맞설뿐아니라 소련과 그대리세력이 취약한 곳을 반격한다는 것으로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소련및 북한에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던진다.

하나의 침략에 수개의 반격으로 대처하는 레이건행정부의 새전략에 따라 非核통상병력증대가 불가피해진다. 레이건행정부는 83회계년도 통상병력증강예산을 1천억달러로 책정하며 전년도보다 20%나 늘렸다.

레이건행정부의 이새전략은 「유럽중시」전략에서 다소 벗어나 서남아시아와 中美등에서도 소련이나 그대리세력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된다. 금년들어 헤이그국무장관이 쿠바와 니카라과가 소련지원으로 엘살바도르등이웃 중미국가들을 침투, 전복하려는 군사음모를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는 것이 바로 이 새전략개념에서 나온것이다.

「세계국가」로 다시 발돋움하는 레이건군사전략은 83회계연도에 44억달러로 신속배치군강화를 위한 공해수송능력을 증강하고 해군력의 대폭 강화를 추진한다. 레이건대통령은 해군함정건조계획이 82회계연도의 89억달러에서 1백86억달러로 거의 배로 늘어나고 1990년까지에는 현재의 5백13척해군이 6백척해군으로 늘어날것이라고 예산교서를 통해 말했다.

2척의 핵추진항공모함이 87년까지 건조되어 진수될것이라고 레이건은 밝혔다.

와인버거국방장관이 연례국방보고서에서 일본이 동북아에대한 소련침략위협에 맞서 방위력을 더증강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이 아서아·태평양지역안정유지에 한 주요역할을 하고있으며 이지역의 미전진방위전략에 초석이되고 있다고 한것은 중공과의 對蘇전략협력을 중시한 카터행정부 전략과는 다른 점이다.

레이건행정부의 83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소련의 군사력강화를 바탕으로한 침략이나 그대리침략전쟁을 저지하고 「몰스핀 미국」이 다시 강력한 「제1의 세계국가」로 뻗어나가려는 군사 전략을 펼치고있다. 【워싱턴6일=曺淳煥특파원】

레이건 새豫算案 反應

美民主黨 國防費삭감선언
共和黨도 큰財政赤字불만

【뉴욕6日AP=聯合】 83회계연도의 예산적자가 9백1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6일 白堊館이 발표하자 야당인 民主黨은 물론 많은 共和黨의원들까지도 레이건 행정부가 제출한 내년도예산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원들은 백악관이 제출한 83회계연도예산안을 가리켜 『실행불가능하고 미련하며 불공평한 계획』이라고 힐난하면서 국방예산의 삭감을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레이건 대통령이 현회계연도의 예산안과 감세정책에 대폭적인 지지를보냈던 공화당의 지지자들도 적자폭이 너무 커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日本정부는 美國정부가 공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금년보다 13%나 늘어난 2천6백30억달러로 책정된데 대해 이를 蘇聯의 군력증강에 대응하기위한 당연한 자세로 받아들였다.

海外토픽

5百여胎兒보관 ★醫學실험회사 社長집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한 의학실험회사 사장은 집뒤뜰의 대형 해운용 컨테이너속에 5백개이상의 태아를 보관해 두고 있다가 발각이 됐다.

경찰은 이들 태아가 플라스틱제의 흰컨테이너속에 포름알데히드라는 방부제에 싸인채 보존돼 있었으며 이미 3년전에 낙태된 태아도 더러 있음을 시사하는 의료기록도 함께 발견됐다고 공표했다.

이 컨테이너를 열어본 크·마틴씨는 작게는 달걀크기만한것에서부터 5~6개월된 것으로 보이는 태아까지 함께 뒤범벅이돼 있었으며 심하게부패된 상태였다고 설명. 【로스앤젤레스=聯】

★낙하산 안펴져오물통에 맹렬女性九死一生

한 여성스카이다이버가 지상 3천8백m상공에서 자유낙하를 시도하다가 낙하산 조작실패로 그대로 지상에 곤두박질했으나 다행히 깊이 0·6m의 오물구덩이에 떨어져 생명을 건졌다.

올해 20살난 리저·보이어라는 이 맹렬여성은 최근미국 로스앤젤레스 동남방1백㎞지점상공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다가 낙하산이 펴지지않아 모두들 죽은줄로만 알았다는것.

그러나 이 여성은 천우신조로 부근 오물처리공장의웅덩이에 떨어져 생명을 건졌는데 병원측은 이 여성이 비록 중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聯】

◇結婚式후의 룩셈부르크 公主 룩셈부르크의 마리·아스트리드공주가 6일 결혼식을 올린뒤 왕궁발코니에서 夫君인 합스부르크·로트링겐家의 크리스티앙大公으로부터 키스를 받고있다. 【룩셈부르크6日AP特約=聯合】

演藝界소식

「최후의 證人」出品 칸영화제서 요청

6·25의 전흔을 사상과 인간적측면에서 묘사한 영화 「최후의 證人」(감독 李斗鏞)이 오는5월14일 개막되는 제35회칸영화제에 출품된다.

「최후의…」의 출품은 칸영화제 질·자곱사무국장의 요청에 의한것. 李斗鏞감독의 「피막」이 베니스, 3대륙영화제등을 통해 호평을 받자 출품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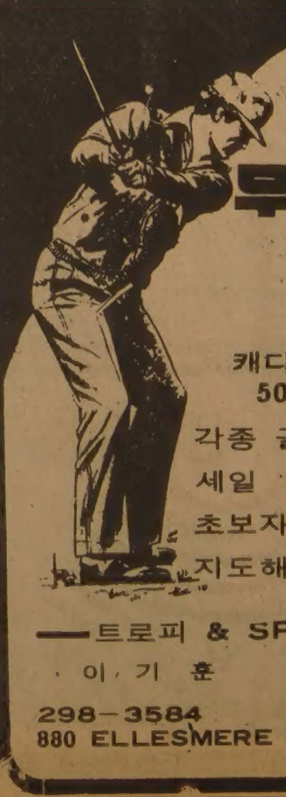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
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한국일보

특집판

「오래 오래 건강하게」… 天壽를 누리는 秘訣

당신도 150세를 살수있다

人間의 壽命한계와 老化의 醫學

健康이상의 幸福은 있을수가 없다

健康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손안에 들어와도 건강하지않으면 소용이 없다. 건강은 행복의 첫걸음이다. 집안에 한사람의 환자라도 있게되면 행복은 꽃피울수없다. 생존경쟁이 날로심해지고 바삐 돌아가야 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건강은 특히 절대적이다. 지칠줄 모르는 활동력과 번뜩이는 창조력도 건강이 뒷받침될때 샘 솟는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 속에 파묻혀 半健康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半健康을 이기는 新 健康·長壽작전을 식탁에 올린다.

70을 살아도 제몫 半밖에 못찾는셈

편식10년·吸煙10년·過飮10년·스트레스10년등 減壽自招

百年동안 平均壽命 倍로…20年内 혁명적長壽法 나올듯

「늙어서죽는」경우 드물고 거의 病死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지만 누구도 인생 2백세를 넘어서지 못했다. 漢나라 武帝때 東方朔은 3千甲子(1만8천년)를 살았고 창세기(舊約聖書) 때 무드셀라는 9백69년을 살았다. 彭祖란 중국 사람은 8백세에 죽었다. 그러나 이는 한낱 전설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건강·장수」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꿈은 어느정도까지 실현될수 있는 것일까.

1세기전만 해도 사람의 평균 수명은 30~40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1백년이 지난 오늘 인간의 평균 수명은 60~70세를 넘어 80~90세에 도전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평균수명 1백세도 꿈만은 아닌것 같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은 이렇듯 무한정 늘어만 갈수 있는 것일까.

1938년 소련의 학자 보고모레테스는 『생물은 성숙기가 빠를수록 속히 사망하며 수명(生存期)은 성숙기의 5~6배에 이른다』는 학설을 내 놓았다. 慶熙大東西의학연구소장 李濟九박사(病理學)는 이같은 보고모레테스의 학설은 통계학적인 관찰에 바탕을 둔것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따질때 사람이 누릴수 있는 수명은 성숙기를 25세로잡아 1백25~1백50세가 되는셈이다.

『1백50세를 산다』—엄청난 이야기인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73년 9월29일 사망한 소련의 시라리·미스리모프옹은 1백68세의 壽를 누렸고 우리나라에도 1백세가 넘은 장수자가 지난해 2백74명에 이르렀다. 인구10만명당 0.72명 꼴로 1백세 이상의 수를 누리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 1백세이상 장수자는 80년 1천3백50명에 이르러 인구 10만명당 1·23명 꼴이 되고있다. 이렇게 따질때 「인생 1백50세」는 놀랄 일만은 아닌것 같다.

그렇다면 20세기 최첨단을 걷는 고도의 과학시대에 사는 우리가 타고난 수명마저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大醫大 낸과 韓鏞徹교수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늙음이 곧바로 죽음을 불러 들이는 일은 없다』고 설명한다. 모든 사람의 죽음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란것이다. 다시말해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들어 죽게되어도 죽음엔 원인이 되는 질병이 뒤따른다는것.

4천년전 靑銅器시대 사람의 평균수명은 고작 18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것이 2천년전 로마시대에 22세로 4년이 늘어났고 중세부터 18세기까지 30세쯤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발굴된 옛사람들의 뼈와 유물들에 의해 추정된 것이지만 당시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떨어진데는 까닭이 있다. 치사율이 대단히 높은 페스트를 비롯, 콜레라, 천연두, 장티푸스, 발진푸스등 각종 전염병이 창궐,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 갔기 때문이다.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 나기시작한것은 1930년대이후이다. 전염병을 예방할 각종백신과 항생물질이 등장하면서부터 라는것이 서울大保健大學院원장 許程박사의 설명이다. 이로해서 15세기 유럽인구의 3분의1을 휩쓸어 갔던 페스트로부터 인간은 해방되고 천연두는 아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엔 평균수명 70세를 넘는 나라들이 속속 늘어 나고 있다. 세계적인 장수의 나라로 꼽는 스웨덴은 75년기준 평균수명이 남자 72·1세, 여자 77·7세를, 네덜란드는 남71·1세, 여 76·8세로 남녀 모두 70세를 넘어 선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1938~42년 까지만 해도 평균수명이 남자 44·5세, 여49·0세에 불과했다. 그러던것이 61년 각각 54·4세와 60·6세로 껑충 뛰었고 70년엔 남59·8세, 여66·7세를, 79년엔 남62·7세, 여69·1세로 평균수명 70세를 바라보고 있다.

「평균수명 70~80세」—이는 당면한 우리의 목표이다.

하지만 이수치는 주어진 수명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東京學藝대학 야마노(山野三剛)교수는 사람이 타고난 수명의 절반에 살지못하는것은 몸과 마음을 한평생 최고의컨디션으로 유지할수 없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즉 어머니 배속의 태아로 있을적에 영양부족으로해서 15년이줄고 유아기의 편식으로 10년이깎이는가하면 성장해서 담배를 피워 10년, 과음해서10년, 사회생활에서 오는불안등각종 스트레스로10년이 감점되고 다시 운동부족으로10년이줄어도합65년을타고난 수명에서 깎아 먹게 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인간 1백50세는 이들 減點요인을 제거해 나갈때 가능해진다는것이다.

한편 세계의학자들은 근본적인 노화의 현상을 규명, 이로 부터 건강과 장수의 길을 풀어 보려한다.

노화의 현상에 대해 현재 설명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설로는 유전설, 조직상해설, 조직 소모설, 호르몬 결핍설등을 꼽을수있다.

유전설은 프로그램설 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태어 나면서부터 일정한 수명을 타고 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노화를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태어날때부터 설정되어 있다는것. 장수집안에 장수자가 나타나는것이 그좋은 실례가 된다는것이 가톨릭의대 낸과 閔炳奭박사의 설명이다. 조직상해설은 大腸속에는 여러가지 잡균이 잡균이 번식하면서 毒素를 내뿜고있다. 이 독소가 혈액속에 흡수되어 조직세포의活力을 떨어 뜨린다는것이다. 그래서 자가중독설이라고도 한다. 宇宙線에의한 조직의 상해작용도 이에 속한다.

조직소모설은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는 일정량의 생명력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소모함에 따라 늙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정상인의 체세포를 떼어 인공배양할때 각세포에 따라 일정횟수를 분열하게 되면 아무리 배양환경을 좋게해도 죽어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동물은 갖고 있는 생명력을 다 써버리면 죽게마련이란것. 그래서 이를 에너지설이라고도 한다.

호르몬결핍설은 각 호르몬의 결핍을 노화의 원인으로 보는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것이 性호르몬. 통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어렸을 때의 사망률도 적고 훨씬 더 오래 산다. 동물실험에서 수놈의 고환을 도려내면 수명이 연장된다. 사람의 경우는 실험할수 없지만 옛날 궁중의 宦官들이 장수 했다는 이야기가있다.

이밖에도 노화현상을 설명하는 학설은 많다. 臟器상해설을 비롯, 영양결핍, 환경, 생활습관등이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의학자들은 이같은 노화의 근본 문제로부터 건강과 장수의 길을 찾아보려는 연구와 노력을 하고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의 바니트·로젠버그박사팀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이용, 수명을 2백세로 연장하게될 날이 멀지않아 오게될지 모른다고 예언한다. 노벨의학상을 탄 영국의 맥마랜·버네트박사는 免疫조직을 자극함으로써 수명을 연장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몇몇 학자들은 性호르몬을 적당히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젊음을 연장하고 여성이 경도가 멎더라도(閉經) 다른 여인보다 뼈가 덜 약해지고 자궁암에도 잘걸리지 않게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있다.

니브래스카대학의 덴헴·하먼박사는 인체안의 자유基(Free radical)를 떤 물질이 노쇠현상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으며 이 자유基를 酸化방지제로 억제해 줌으로써 실험동물 쥐의 수명을 45% 연장하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유타대학헨리·마이링박사는 유황이 함유된 아미노酸이나 유황 또는 셀레늄등의 화합물이 든 음식물을 攝이 섭취하면 수명을 어느정도 연장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같은 단편적인 연구는 얼마든지 있다.

최근 分子생물학 특히 遺傳工學의 놀라운 발달은 유전자를 설계해서 바꿔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달은 실제로 박테리아로부터 인슐린을 뽑아내는등 遺傳子산업시대를 내다본다. 의학자들은 이같은 유전공학지식을이용, 일정한 수명만을 허락한 유전자 속의 神의 명령(유전 정보)을 뽑아 버리고 1천년, 2천년의 장수를 누릴수 있도록 새로운 인공 유전인자로 대체하는 영생의 꿈마저 실현해 보려한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하나의 꿈으로 그칠지 모른다.

하지만 의학자들은 노쇠현상에대한 최근의 여러가지 현상이의학의발전에 힘입어 빠르면 앞으로5~10년늦어도 금세기말까지는 늙음의현상을 어느정도 억제할수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발견되지 않을까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이렇게되면 인간에게 주어진 1백50세의 수명은 누구나 누릴수 있게 될것이다.

李光榮 차장

◇「건강한 새벽」의 熱意 南山은 이른새벽부터 체력을 가꾸는 사람들의 열기띤 숨결로 가득찬다。

現代人의 「半健康」을 씻어내는 서울南山의 現場

상쾌한 새벽에 體力을 가꾼다

체조·줄넘기에 걷고 뛰고…冷水浴派도 골짜기마다 "건강" "건강" "제일" "제일"

대부분 病勢나타나나 고생하다 登山시작 신기할 정도로 "이젠 雜病이라곤 몰라"

體力을 다지는 상쾌한 서울의 아침은 南山순환도로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4시반. 장충체육관에서 국립극장을 끼고 남산으로 오르는길은 어둠이 깔려있다. 그 어둠을 가르고 이곳 저곳에서 인기척이 난다. 『야호-!』짧고 또렷한 부름에 『야호-!』화답이 있다. 남산 팔각정으로 오르는 길은 걷고 뛰는 사람들로 줄을 잇는다.

새벽5시. 남산타워 입구 공터이곳 저곳에 도수체조와 줄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 온다. 모두 맑은 가을의 새벽 공기를 마음껏 들이 마시기에 여념이 없다.

체력은 가꾸는것. 상업을한다는 鄭台鎬씨(45·龍山區普光洞265의26)는 이곳 남산을 찾기 꼭 1년이 되었단다.

『건강이 나빴읍니다. 위하수로 7, 8년을 고생 했으니까요. 약도많이 먹었읍니다. 세상에 건강보다 더 소중한게 없다는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지요. 처음은 친구를 따라 왔어요. 한달이 고비였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소화는 물론 몸이 거뜬해 졌거든요』

鄭씨는 두달쯤 후부터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깨워 함께 나오게되었다한다.

『새벽 4시에 일어 나는 일이 처음은 고역이었읍니다. 별다른 준비가 필요한것도 아닌데…』 옆에서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있던 鄭씨의 아내 任永順씨(39)가 거들었다. 『늘 머리가 무겁고 팔다리가 쑤셨읍니다. 새벽 남산길을 오르내리기 1주쯤후 부터인것 같아요. 아픈 증세가 씻은듯 사라졌어요. 신기할 정도 였읍니다. 요즘은 아픈것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깨워 함께 나오고있읍니다』 鄭씨와 3남매중 막내인 4살짜리 꼬마(鍾羽)는 기분이 좋은듯 플래시를 켰다 껐다하며 뺑뺑이를돈다.

먼동이 트려는 것일까. 어둠이 서서히 엷어지고있다. 두세명씩 짝을진 체육복차림의 사람들이 줄을 이어 이번엔 팔각정쪽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한손엔 물통을 쥔 사람들도있다. 걸음 걸이가 가뿐하다.

李光寅씨(61·城東區九宜洞254의102)는 새벽의 남산을찾은지 20년이 되었다한다. 『젊어서 운동을좋아 했읍니다. 운동을 못하게되니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무섭게 불어 났어요. 마흔이되니 몸무게가 85kg을넘어 섰지요. 안되겠다 싶어 새벽의 남산을 찾게되었읍니다. 2년쯤걸려 체중을 67kg정도로 줄일수 있었어요. 그때의 체중이 지금까지 변동이 없읍니다. 감기라고요? 그런것 모르고 지냅니다』

발걸음이 그토록 가뿐할수없다.

『야호-!』『야호-!』남산순환도로는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로 줄을 이었다.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인지 알수가 있지요. 간혹 처음 듣는 목소리도 있지만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야호」에 「야호」로 응답 하기만 하면 돼요. 인사 이니까요』 李光寅씨의 말이다.

『새벽4시에 집을 나옵니다. 九宜洞에서 첫 버스를 타고 新堂동까지옵니다. 신당동에서 장충체육관을 거쳐 남산 북쪽 순환도로를 따라 팔각정에 오르지요. 그리고 곧바로 남산약수터로 내려 갑니다』

약수터 공터엔 체력을 가꾸는 사람들로 웅성댔다. 평행봉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거꾸로 누워 비끄러맨 발목의 힘을 이용, 일어나 앉았다 누웠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

아침6시30분. 딸랑딸랑 종이 울렸다. 2백여명이 뒤직했다. 일제히 하던운동을 멈추고 공터 이곳저곳에 흩어져 자세를 바로 잡는다.

「건강!」「건강!」、「제일!」「제일!」「야호!」「야호!」선창에 이은 후창이 남산에 메아리진다. 이어 15분간의 도수체조.

남산은 이제완연한아침을맞고있다.

「푸!푸!」 절터 약수터 바로 아래 쪽에선 알몸의 사람들이 찬물을연신 머리로부터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이른 아침 맑은 자연수로 온 몸을 씻는 쾌감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17세때부터 45년간 새벽 냉수욕을 해왔다는 朴熙增씨(62·中區芳山洞12의3)의 말이다. 朴씨는 이곳약수터에서 새벽 냉수욕을 즐기는 사람은 줄잡아 20명은 된다고 했다.

『영하 15도정도까지는 냉수욕을즐길수 있어요. 신문지 한장정도로 손만 녹이면 됩니다』

朴씨는 6·25때 잠시 폐결핵을 앓았을뿐 아직 감기한번 앓아본적이 없다고 했다.

냉수욕장 바로 이웃 배드민턴장에선 20여명의 사람들이 한창 게임을즐기고 있었다.

남산을 찾은지 15년이 됐다는 朴淸子씨(61·여·江南區盤浦洞한신4차205동807호)는 고혈압과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던중 남편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은 남산 아래 약수터까지가는것도 숨이차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중도에서 두번이나 포기 했지요』

그러기를 몇달. 朴씨는 밥맛이 나기시작했고 무겁던 머리도 맑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후의 새벽 남산길은 빼 놓을수 없는 일과가 되었다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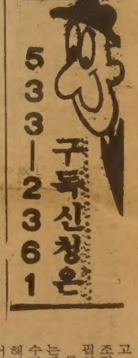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오르고있었다. 출근 시간 때문인지 서둘러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고 있었다. 그러나 비워진 자리는 곧 새로운 사람들로메워지고 있다.

늦잠을 즐긴 사람들의 행렬인듯. 상쾌한 아침, 체력을 가꾸는 남산 현장은 이렇듯 젊음이 출렁이고있었다.

李光榮 차장

取材팀
科學部 李光榮 차장
文化部 金周彦 기자
寫眞部 崔東完 기자
徐鍾道 〃
權周勳 〃

도움말 주신분 (가나다順)
鞠弘一 박사(梨大醫大)
金明宰 박사(慶熙大醫大)
閔炳奭 박사(가톨릭醫大)
孫同銖 박사(서울大齒大)
李雄求 박사(延世大醫大)
李濟九 박사(慶熙大醫大)
崔圭完 박사(서울大醫大)
韓鏞徹 박사(서울大醫大)
許沅 박사(가톨릭醫大)
許程 박사(保健大學院)



구독신청은 533-2361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SHANGHAI RESTAURANT

메 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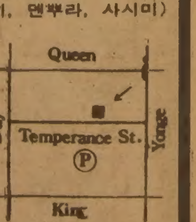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뎀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 일 반 광 고 : 최 성 조
● 매매구인광고 : 박 경 옥
533-236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늘부터 버스 敬老무임乘車
"優待證발급 不便하다"

"住民證으로 代用했으면"
사진찍고 洞사무소가기 번거롭다"

10일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처음으로 시내버스의 무임승차가 허용되는등 전국1백48만명의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된다. 교통부는 9일 이에 관련된 행정지침을 마련, 각시·도및 전국버스연합회에 시달하는등 우대제확대 실시 준비를 점검했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한 정부의 좋은 시책이 경로우대증발급 절차가 까다로운 탓으로 일부 혜택자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당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전국시·도의 경로우대증 발급실태는 평균50~60%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있어 많은 시·도의 관계자들과 혜택대상 노인들은『기왕에 정부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로한것이면 별도로 우대증을 발급하지말고 주민등록증으로 우대증을 대체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실적 不振… 전국 50~60%만 만들어

경로우대증 발급실태가 크게 부진한데대해 일선실무자들은 ▲우대증에 붙일사진(증명용)을 새로찍는것이 노인들에게는 적지않게 번거로운일이며 ▲사진을갖고 洞이나 面사무소로 찾아가 우대증을 발급받는것도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노인에게는 불편한일이어서 발급실적이 저조하며 ▲사진값 2천원상당도 또한 부담이되기때문이라는것.

이때문에 도시의 일부 洞사무소에서는 통·반조직을 통해 노인들을 직접방문해 사진을 얻어다가 우대증을 발급, 가정에 배부해주거나 경로당등에서 실비로 사진을찍어 우대증발급에 사용하고 사진값을 부양의무자에게 부담케하는 방법까지 쓰고있지만 이같은 친절을 베푸는 일선행정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해 우대증발급실적은 저조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70세이상 노인13만9천여명은 지난해발급받은「경로우대증」을 오는 4월말까지 사용할수있지만 확대실시에 따른 새로운 대상자인 65세이상~69세까지의 노인10만6천여명은 사진을 붙인 우대증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발급실적이 아주 저조한편이다.

실적이 양호한 江南區의경우 9일 현재 새로운 대상자 2천53명중 70%정도가 우대증을 발급받았지만 恩平區·西大門區등에서는 40~50%선에 머물고있다.

西大門구청의 경우 노인들이 거동불편등에 따른 우대증발급기피에 대비키위해 각통·반조직을 통해 노인들을 직접방문, 사진을 얻어서 우대증을 만들어 가정으로 가져다주기도하고, 마을 경로당등에서 노인들에게 실비로 사진을 찍어준후 부양의무자에게 사진값을 받는 방법도 쓰고있는데도 발급실적이 저조하다는것이다.

한편 서울시버스조합측은 사진이 붙은 우대증과 붙지않은 우대증등 2가지가 혼용되면 안내양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 통일을 기해줄것을 건의했다.

또 조합측은 버스요금이 완전무료화되면 노인들의 버스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아질것으로 예상하고『불필요한 승차나 출퇴근시의 승차는 되도록 삼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남도의 경우 노인우대제 확대실시로 새로 혜택을 받게된 7만7천32명을 포함, 도내의 전체대상자가 21만1천5백3명(남자7만6천2백27명·여자 13만3천2백76명)인데새혜택자의우대증발급실적은 역시저조한 실정이다. 이에따라전남도당국도 노인들이 우대증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지니고 다니는 불편을 덜어주고 새로이 우대증을 발급하는 번거로움등을 없애기위해 주민등록증 소지자에게 우대혜택을 주도록해줄것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승객救出작전 '9일상오8시45분 東京灣에 무력하게 누워버린 JAL여객기의 앞부분에 구명정을 타고 몰려든 구조대원들이 물이 스며드는 기체안에서 승객들을 구출해 내고 있다. 【日本요미우리新聞제공 東京支社 KIT전송】

바다에 다이빙한 JAL機탄 한국인
타박상만입고 九死一生
KAL직원 尹澤熙씨 이마10바늘꿰메

【東京9日=文昌宰기자】9일상오 하네다(羽田)공항앞 바다에 추락한 JAL DC8기엔 한국인 승객1명이 타고 있었으나 무사히 구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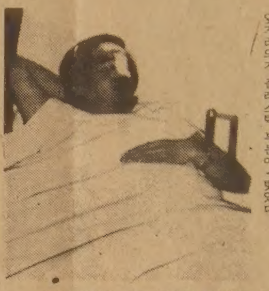
한국인 승객은 KAL후쿠오까(福岡)지점차장 尹澤熙(39)씨.

尹씨는 착륙당시 충격으로 앞자리의자 플래스틱 부분에 부딪쳐 이마와눈썹사이에 10바늘을꿰매는 타박상을입고 공항부근 지께이(慈恵)의대병원에 옮겨져 응급치료를받고 입원가료중이다.

尹씨는 이날 상오10시부터 東京 아까사까(赤坂)도큐호텔에서 열릴 KAL일본지역영업회의에 참석키위해 후꾸오까공항에서 이비행기를 탔었다.

尹씨는 비행기가운데 우측날개쪽 창가에앉아있었는데 착륙순간 잠들어있어 사고경위를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尹씨는 잠결에 꽝하는 충격을 느꼈으나 곧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사고순간을 말하는 한국인탑승자 尹澤熙씨。【東京支社KIT=銃】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밑빠진 독" 마을金庫
雙門1洞 殘高바닥…천여명졸업반童心 또울려
횡령간부拘束…"3천여만원도 없다"

또 마을금고가 사고를 냈다. 이번에는 임원들의 부실대출·횡령등으로 잔고가 바닥이나 졸업을 앞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저축금을 찾지못하게 된것.

서울道峰區雙門1洞마을금고(수습이사장 金周赫)는 雙門·白雲등 2개국민학교 졸업반학생 1천3백18명의 저축금 3천여만원을 졸업식을 하루 앞둔 10일까지 내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雙門국교 교장 郭永夏씨(61)에 의하면 두국민학교측은 지난 1월중순께부터 6학년 졸업반어린이들의 저축금 3천여만원을 지난달말까지 인출해줄것을 마을금고에 요청했으나 잔고가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해주지 않고있다는것.

학교측은 졸업생분 뿐아니라 지금까지 양교의 전교생들이맡긴 저축금 1억6천여만원도 회수가 어렵게된것같다고 걱정한다.

이에대해 마을금고측은『학생들의 저축금이니만큼 잔고가없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지불이될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만 말하고 있다는것.

雙門1洞 마을금고는 지난해 5월 상무와 과장이 마을금고돈 6천여만원을 부실대출, 또는 횡령하는 방법으로 빼내 구속된이후 심한 자금부족을 겪어왔다.

한편 학교측은 지난1월중순 마을금고 서울市지부연합회에서 수습금액으로 나온 6천만원을 전용해서라도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주지말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大邱市 격일제給水
오늘부터 가뭄에 취수장結氷

【大邱=鄭】大邱市는 10일부터 일부지역에대해 격일제 급수를 하기로 했다.

9일 市에 따르면 계속된 겨울가뭄으로 가창·공산댐의 저수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낙동강취수장까지 결빙, 전체의 31%에대해 격일제급수를 실시하기로 했다는것.

市는 35대의 급수차를 동원, 수도사정이 좋지않은 고지대등에 식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세무원 請負살인 主犯에 無期선고
共犯4명은 징역 5~4년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申性澤부장판사)는 9일상오 서울北部세무서원 姜貞根씨 피살사건관련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姜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던 주범 金明煥피고인(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범인 崔春燮피고인(26)에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구형14년)을, 姜씨의 세금추징에 반감을 품고 姜씨에 대한 폭행을 의뢰한 金光源피고인(36·서울東大門시장동우직물주인)과 金피고인의 부탁을받고 범행을 교사한李岩(36·부동산업) 李文榮피고인(26)등 3명에게는 상해교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4년(구형 각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姜씨를 칼로 직접찌른 金明煥피고인에게만 살인죄를적용했고 나머지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주범 金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姜씨를 죽일 의사는 없었던점이 인정된다』고지적,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등을 적용했다.

쇼스타코비치 아들 서울演奏위해 訪韓

러시아 작곡가인 쇼스타코비치의 아들인 지휘자 막심·쇼스타코비치(43)와 손자인 피아니스트 드미트리·쇼스타코비치(20)부자가 한국에서의 공연을위해 9일하오3시50분 대한항공편으로 일본에서 입국했다.

지난해4월 예술의 자유를 찾아 소련서 서방으로 망명해온 쇼스타코비치부자는 12일 世宗문화회관에서 선친의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

◇신나는 卒業해프닝 서울시내 초·중·고교들이 9일부터 졸업식에 들어갔다. 서울 泳薰高는 9일상오10시 동교강당에서 간소한 졸업식을갖고 남자 2백93명, 여자2백96명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도 교복에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얼굴에 구두약을칠한 졸업생의 모습이보여 축하객들의 웃음을 샀다. 金泳薰교장(78)은『거짓없는 밝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면서 협동정신을 드높여 사회의 유능한 일꾼이 되어 줄것』을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高校生 폭력서클
패싸움 1명숨져

9일상오11시20분께 서울 冠岳區新林9洞155의19 미림여자상업고교앞길에서 이학교3년 李承燦군(17·冠岳區新林2洞120의5)이 朴모군(17·N중3년)등 6명과 시비끝에 朴군이 휘두른 칼에 찔려숨졌다.

「야생마」란 폭력서클회원인 朴군등은 이날 미림중학교앞에서 같은 서클회원인 미림중3년 金모군(17)을 기다리다 원소金군과 사이가좋지않았던 야산클럽회원인 李군과 마주치자 시비가벌어졌는데 李군이 반항하자 李군의 왼쪽가슴을찔러 李군은 1백m가량 걸어가다가 쓰러져 숨졌다는것.

朴군등은 李군을찌른뒤 동네뒷산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하오 경찰에 붙잡혔다.

朴군등은 동네친구 11명과함께 지난해 12월초순 야생마란 불량서클을 조직, 편싸움을 일삼아왔음이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判決불복 高法항소 李榮順양 殺害사건 大田지검

【大田=鄭】속보=大田지검 權五德검사는 李榮順양 살해사건의 金石秀피고인(25)에 대한 1심의 무죄판결에 불복 9일하오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住宅街 연쇄 차치기
新寺洞 女巡警 카메라등 뺏겨
葛峴洞 주부 1百여만원 강탈

8일 하오6시10분께 서울 恩平區新寺洞101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울시경소속 池영선순경(29·여)이 포니승용차를탄 20대청년에게 카메라와 현금등 20여만원어치의 금품이든 핸드백을 차치기 당했다.

池순경에따르면 이날 퇴근해 골목길을 들어서는데 뒤에서 감색포니승용차가 다가오더니 조수석에탄 20대청년이 창밖으로 손을내밀어 핸드백을 나꿔채 달아났다는것.

경찰은 池순경의 진술에따라 서울×2809호 감색포니승용차를 수배했다.

또 3일하오5시께도 서울 恩平區葛峴洞429의29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동네 具채춘씨(52·여)가 현금80만원과 자기앞수표 10만원권 5장등 1백30만원이든 핸드백을 승용차를 탄 청년에게 날치기 당했다.

釜山大 8백61명 學事경고 2백24명 除籍처분

【釜山·全州=鄭】釜山대학교는 8일 81학년도 2학기 성적불량학생 총8백61명(전체학생 1만3천9백87명의 6·2%)을 학사경고하고 이중 2백24명을 제적처분했다.

釜山大에 따르면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졸업정원제 실시 첫해인 지난해 입학생(1학년)이 6백23명으로 가장 많고 2학년이 2백5명, 3학년이 33명인데 이같은 숫자는 지난1학기의 9백23명보다는 62명이 적은 것이다.

女藥師 극약마시고 숨져
司法考試합격한 愛人변심 비관

9일 상오11시30분께 서울 城北區 吉音2洞619의1 새김약국 약사 金淑順씨(26·여)가 극약을 마시고 숨져있는것을 어머니 李윤옥씨(53)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李씨에의하면 혼자 약국을 개업하고있는 딸 金씨로부터 지난6일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날 약국을 찾아와보니, 가게방에 반듯이 누운채로 숨져있었다는것.

金씨는 애인 모씨가 지난해 사법시험에 합격한뒤 변심해 만나주지 않는것을 비관해온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에 의하면 金씨는 고교재학당시 대학에다니던 C씨가 가정교사로 들어와 알게된이후 여대에 입학하면서 더욱 가까와져 집안이 어려운 그를 4년동안 뒷바라지 해왔다는것이다.

制憲의원 金尙浩씨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金尙浩씨가 9일상오10시 전남光州市大義洞16의3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81세.

발인은 11일상오10시, 장지 전남光山郡三道面大山里 선영(☎2453(제헌동지회)。

世界野球참가팀 決定
서울서 國際野球聯 집행위 개최

국제야구연맹(AINBA) 집행위원회의가 13, 14일에걸쳐 2일간 서울호텔신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AINBA집행위원회의에서는 오는 9월4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열리는 제27회세계야구 선수권대회의 12개출전국과 경기일정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AINBA집행위원회의는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앞서 대회개최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회원국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베네수엘라, 네덜란드등 10개국이며 한국, 스페인, 호주등 3개국은 각 대륙담당부회장국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花郎팀 壯途에
印國際축구參加

印度국제축구대회(2월16~3월4일·캘커타)에 출전할 국가대표 花郎팀이 20일간의 鎭海전지훈련을 끝내고 10일 상경, 14일 장도에 오른다.

지난해11월30일에 새로 개편된 花郎팀은 오는11월의 印度아시안·게임에 대비, 지난1월5일부터 본격적인 강화훈련에 돌입하여 금년들어 첫 국제대회인 印度대회에 출전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선수단명단▲단장=朴東熙(부회장)▲코치=金正男▲트레이너=金鎬坤▲국제심판=羅允植(住宅銀)▲선수=崔光植(이상GK)鄭聖敎(延大)權五孫(서울市廳)張外龍(延大)鄭鍾洙(高大)朴成華(忠義)崔景植(大宇)崔基奉(海軍)白致守(漢陽大)李康助(高大)李泰昊(高大)李聖吉(東亞大)(이상LK)丁海遠(延大)申相根(浦鐵)黃石根(高大)崔淳鎬(浦鐵)姜信寓(서울大)邊一雨(慶熙大)(이상FW)

地檢서 40여명籠城
"大乘宗교주 처벌하라"
信徒농락…사찰財産횡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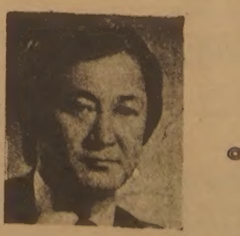
9일상오10시께 서울中區西小門洞37 서울지검 청사에 대한불교 大乘宗 교정숙 乘精舍(서울 麻浦區 城山洞)신도 40여명이 몰려와『大乘宗교주 金映德씨(37)를 처벌해달라』며 2시간가량 농성을벌이다 출동한 기동경찰에 의해 보호됐다.

이들은 교주 金씨가 신도10여명을 농락하고 신도들이 시주한 전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 지난달27일 서울지검에 金씨를 사기및 혼인빙자간음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했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날 검찰에 몰려온것.

이날 농성에나선 신도들은 대부분 청년신도회 회원들로 어깨에『사이비교주金映德을 처벌하라』는 띠까지 두르고 있었는데 교주金씨는 경찰에서 조사를받고나온후 고소장에 서명한 신도들집에 전화를걸어『쥐도 새도모르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했다고 주장했다.

THE KOREA TIMES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오타와 지국장입니다
이 태 은 : ☎ 722-6133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드립니다.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매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토타리오 인접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샾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 주간여성 ♡
인기절찬 판매중!
2월7일자
주간女性
31살 미모의 女僧이 대학首席졸업
—東大 불교학과 海住 스님의 캠퍼스 追憶

<탤런트 林賢美>
두女大生의 수석 졸업 秘訣
行者 스님이 서울大에 合格
빛나간 대학 知性의 문젯점
續·異女列傳 吳나라 西施
여배우들 러브신 촬영 秘話
별짜人生 산 헬드클럽 관장
컴백說 도는 金昌淑 데뷔記
일꼬 夫婦가 조각배 타고 고기잡이 同苦同樂
캐나다 首相 부인의 男性 편력 自敍傳 2彈!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國寶級문화재 40점 國家기증

獨立운동 李元淳씨 金銅菩薩三尊像등

◇40점중의하나인 金銅菩薩三尊像. 국내에서도 희귀한 국보급문화재로 평가되고있다.

독립운동가이며 韓美협회 명예고문인 李元淳씨(89·서울城東區廣壯洞 山21 워커힐아파트23동103호)가 8일 金銅菩薩三尊像등 지정문화재급을 포함한 문화재 40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문화재중 19점은 李씨가 일본·미국등에서 수집, 30년간이나 미국체이스·맨해턴은행에 보관해오던것이며, 나머지 21점은 국내에서 수집한것이다.

「우리말放送 海外로 擴散」

尹溶 〈高大新放科교수〉

우리말 방송이 점차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우리말 방송이 이제는 터론토, 시드니 등에서 11개 방송망을 통하여 외국의하늘에 울려퍼지고있다.

호주의 시드니에 사는 7천여명의 우리나라 교포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우리말 방송을 듣기위해 라디오 다이얼을 특수방송(SBS)인 2EA局에 맞춘다.

4시 정각이 되면 애국가가 나오고 이어서 우리민요, 뉴스등이 1시간동안 방송된다. 멜번에서도 약 3백여명의 우리교포가 화요일밤 11시에 SBS의 3EA局을통하여 30분간 격주로 방송되는 우리말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1979년8월15일시작).

1975년에 시작된 SBS방송은 현재 한국어, 불어, 태국어등 무려43개국어로 방송된다. 미국의 뉴욕, 하와이, LA등지에서도 특수방송이 되고있지만 소수민족의 개인이 방송시간을 買入하여 광고방송을 하고있는 것이므로 호주의 SBS와는성격이 다르다. SBS는 국가가 설립한 소수민족방송만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고 무려 43개국어로 방송되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방송국이다.

3EA와 2EA에는 각각 2백여명의 고정직원이 근무하고있고 각각 약2백명의소수민족대표자들이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으며 방송시간당 제작비를 받는다(1시간당65달러). 액수는 적지만 되려 전파료를 지불해야하는 미국보다는 훨씬 유리한입장에있다.

【註】이글은 筆者가 1월4일부터 14일까지 호주정부초청을 받고 현지방송국(ABC、CBS등)을 방문했고 17일부터 22일까지 하와이의 태평양텔레커뮤니케이션 회의에 참가,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뉴욕·터론토등 11地域활발
시드니 7천僑胞 火曜日엔 다이얼돌려
故國의 향수달래고 民族魂심는 활력소

SBS와는 별도로 多文化TV局인 0/28·TV에서도 소수민족 TV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영화및 TV프로의 공급이 없어 한국TV프로는 방송되지 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하와이에서는 KOHO 라디오와 KIKU·TV(채널13)에서 각각 한국어방송이 되고있어 우리나라교포들을 위로해 주고있다.

이 두 방송국은 한국인교포 鄭桂成씨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때문에 鄭씨는 이방송을「Voice of Korea」라 명명하고 교포사회의각종 광고를 접수하여 방송업을 운영하고있다(30초 광고비로 75달러).

KOHO局은 매주 토요일 오후3시~5시, 매주일요일 오전10시~11시30분, KIKU·TV는매주토요일오전9시30분~11시30분, 매주일요일밤11시30분~새벽1시40분에 방송된다.

TV프로는 주로 KBS에서 보내온 연속극, 쇼등인데, 영어자막이 없이 방영되고있어서 우리의 文化를 외국인에게 제대로 전달할수없는아쉬움이 있다. 하와이에는 매년 2백50만명의 관광객이 출입하고있고 태평양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으며, 아세아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므로 우리나라 TV프로에 영어자막을 삽입한다면 여러면으로 유리할것이다.

Voice of Korea사장 鄭桂成씨는 하와이에 순수한 한국방송국을 설립하는것이 꿈이지만 2백만 달러의자본을 해결하지못하고 있다(하와이에 현재 2개의 VHF 채널이 비어있어 일본처럼 독자적인 TV방송국을 설립할수 있다고 한다). 鄭씨는 또 한국의 수출회사들이 상품광고를 하지 않기때문에 한국상품을 미국에 알리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도 LA에서는 KWHY·TV(채널22)와 KBSC·TV(채널18)에서 각각 매주 6시간씩 한국방송이 실시되고있다. 또 뉴욕에서는 KWHT·TV(채널68)에서, 볼티모어는 WITH·TV에서, 캐나다의 터론토에서는 CFMT·TV(채널46)、뱅쿠버에서는 케이블 TV로, 사모아는 KZVK·TV, 괌에서는KUAM(라디오)에서 각각 한국방송이 실시되고있다.

이와같이 뻗어나는 국력을 과시하듯 한국의방송망은 전세계로 확산될 전망인데 반하여 KBS는 주식회사 韓國放送事業團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해외한국방송망에 방송프로를 무료로공급하던 시책을바꾸어 오는3월1일 부터는 방송프로를 유료로판매할것이라고 한다. 그렇게되면 가뜩이나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한국의 해외방송망은 더욱 재정난에 빠질 것이고 11개 한국방송망의 해외교포들에 대한 혜택또한 줄어들것이 뻔하다.

우리말방송은 고국을 떠나서 사는 교포에게 향수를 달래주고 조국을느끼게하는 젖줄이 되고있다. 적자와 프로그램결핍에 허덕이는 11개의 해외한국방송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 누구의 소관이든간에 해외방송망은 확대되어야 하고 신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魂을 계속 해외에 심도록하여야 할것이다.

골든·글러브 最優秀작품상 『황금 연못…』

명우 헨리·폰더(76)와 신성 메릴·스트리프가 30일밤 0시(한국시간 31일상오7시) 할리우드의 비벌리·힐튼호텔에서 거행된 제39회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극영화부문 최우수남우상과 최우수여우상을 각각 수상했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선정한 골든글로브상은 그해의 아카데미상을 점칠수있는 상이라는점에서 의미가크다.

헨리·폰더와 캐더린·햅번이 공연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황금 연못 위에서」(On Golden Pond)는 최우수작품상을 비롯, 3개부문상을 차지했고 한 맘나니 백만장자와 그의 애인이 벌이는 코미디 「아더」는 코미디뮤지컬부문 최우수작품상, 최우수남우상(더들리·무어), 남우조연상(존·길거드), 최우수주제가상등 4개부문을 휩쓸었다.

배우출신의 워런·비티는 「공산주의자들」(Reds)로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최우수작품상의 「황금연못」 상 작품상을 수상한 「보통사람들」과 같은 계열.

流星의 賦 〈30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②

취락제에서 수길과의 접견이 있은지 나흘후 사신일행은 경도를 뒤거하여 사까이(堺)로 옮기게 되었다.

우리 국서에 대한 회답을 촉구한데 대해 사까이에서 기다리라는 수길로부터의 전갈이 있었던 것이다.

격지라고는 하나 다섯달 동안을 체류하고보니 경도엔 약간의 애착이 있었다. 홍계남은 요시오까도장(吉岡道場)을 비롯하여 얼굴을 익힌 친지들을 순방하며 송별의 인사를 했다.

동행한 히라또는

『이왕 한바퀴 도는 김에 오꼬이에게도 하직 인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고 계남의 마음을 끌었다.

『어렵지 않은 일이지』

계남이 순순히 동의하고 오꼬이의 집을 찾았더니 오꼬이는

『우리의 이별은 아직 멀었어요』

하고 웃었다.

그까닭을 물은즉 히데쓰구로부터 오꼬이에게 사까이의 묘선사(妙善寺)에 가 있으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했다.

『무슨 이유로 그런 명령이 내렸을까요?』

계남이 물었다.

『곧 조선의 사신들이 그곳으로 가니, 거기서 홍선비를 모시라는 뜻이었어요』

하는 오꼬이의 대답에 계남이 어안이 벙벙했다.

히데쓰구는 끝끝내 홍계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히데쓰구는 자기의 측근 기무라(木村)의 헌책대로 수길에게 홍계남의 포섭책을 의논하기까지 했다. 아니나 다를까 수길로부터

『히데쓰구란 놈이 차츰 사람이 되어가는두려. 사람을 알아 보는 것을 보니』

하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수길은

『일국의 사신으로 온 사람이, 또 듣는바 대로라면 그만한 인물이 어찌 만만하게 처신할 수 있겠느냐. 무리해서 포섭할 생각일랑 말고 그 마음을 사도록 각별히 배려나 하게』

하고 계남을 붙들어 두려는 생각은 포기하라고 했다.

사까이로 출발하려는 전날 밤, 히데쓰구는 대소(大小) 두개의 황금(黃金)의 보검(寶劍)과 포르투갈에서 전래(傳來)했다는 단총(短銃)을 보내왔는데 다음과같은 서신(書信)이 붙어있었다.

『홍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내 평생의 쾌사(快事)라고 아니할수 없소. 다시 만나길 기약할 순 없을지 모르나 나는 홍공을 영영토록 기억하겠소. 보내는 물건 대단치 않사오나 소생의 정표(情表)로서 받아주소서』

홍계남은 정사 부사도 받을수 없는 귀중한 선물을 자기 혼자 받을 수가 없어 모조리 반려할 생각으로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퇴송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까 하여 일단 받아두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답서를 썼다.

『대장군의 호의 거듭거듭 감사합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고 드릴 것이 없으니 송구하구려. 깊이 후은(厚恩)을 잊지 않으리다. 소생 정표로서 다음에 몇자를 써서 앙정(仰呈)하나이다』

그리고 계남은 준비해 온 창호지에 칠언절귀(七言絕句)를 휘호해서 히데쓰구에게 보냈다. 절귀에 왈―

『호탕이수백일사(浩蕩離愁白日斜)
음편서지즉천애(吟鞭西指即天涯)
낙홍불시무정물(落紅不是無情物)
화작춘니갱호화(化作春泥更護花)』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㊽

어머니의 殉敎

1949년 3월17일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것이다. 어머니(에텔·반·와그너)는 일찌기 延禧大교수부인회, 장로교여전도회등을 통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왔었다.

한국부인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겸손한 성격때문에 밖에서 모이기를 꺼려 자연히 우리집을 집합장소로 사용했다.

우리 부모는 부부간이라기 보다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아버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캠핑이나 사냥길에 꼭 어머니를 동반했고 두분의 대화는 항상 재미있었다. 또 중요한 일, 사소한 일을 가리지않고 반드시 두분이 상의하고 결정을 내렸다.

3월17일 우리집에선 延禧大교수부인회가 모임을 갖고 있었다. 마침 유엔대표로 다녀온 毛允淑여사가 초청을 받아 자리를 같이했었다. 정식회의 라기보다는 다정한 친구들의 친교모임이었다.

20여명의 교수부인들이 한참 이야기 꽃을 피우고있을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보니 한 청년이 서있었다. 이청년은 무조건 방안으로 들어 가겠다고 우겼고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된다』며 막는등 옥신각신했다.

소란한 틈을타 또한 청년이 어느새 뒷문으로 들어왔던지 어머니를 향해 뒤에서 총을 쏘았다. 이들 청년들은 다른 교수부인들에게 끔쩍말라고 위협을 한다음 달아났다.

어머니는 白樂濬총장부인의 차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기는도중 운명하고 말았다.

어머니가 피습당했을때 우리가족들은 새문안교회에 있었다. 아버지는 독립국가인 한국에서 이제부터 선교가 새로 시작돼야한다면서 신임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이날도 한국어 교실에서 일을 하다가 소식을 듣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이미 운명하신 후였다.

教授부인회통해 宣教활동중

◇李承晩박사부처와 담소하고있는 어머니㊧. 1912년 서울외국인학교 교사로 한국땅에 도착한 어머니 (에텔·반·와그너)는 1949년 좌익계열의 피습으로 순직, 양화진에 묻혔다.

어머니는 부축했던 교수부인들에게 『괜찮다?』고 한것이 마지막 남긴말이었다고 들었다. 이때 어머니는 만62세에서 보름이 모자랐다.

사건발생 며칠후 범인 5명이 모두 붙들렸다. 이들은 민주학련에 관련된 공산당 학생간부라는 사실이

毛允淑등과 自宅모임서 두 怪漢이 拳銃으로 狙擊

밝혀졌다.

당시 신문들은 유엔대표로 다녀온 毛允淑여사를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갔다는 경찰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아버지는 혹시 미국에있는 친구들이 한국 민족을 원망하지나않을까하여 『공산당이 죽인거지, 어디한국민족이 그랬느냐』고 한국인을적극 변호해마지 않았다. 그렇긴해도 아버지는 돌아가실때까지 공산당이 잘못 본게 아니고 처음부터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믿었다. 한국인들이 이처럼 미국인을 미워한다는 증거를 보이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나는 경찰발표대로 毛여사를 쏠려다 빗나간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어머니를 겨냥한것도 아닌 공산당이 사회혼란을 노린것이라 생각한다.

좌익계열은 구체적 살인 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사회를 혼란시키는것이 주목적이라 어머니가 아니라도 누군가를쏘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어머니를여읜 쇼크로 2층격으로 심장병을 앓게 되었고 2년후 돌아가신것도 이때 도진 심장병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종교적인 위로는 받을수 있었으나 심리적으로는 어떤 위로도 받을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영결식은 延禧大장의위원회 주관으로 새문안교회에서 거행된데이어 한달후 정부와 교육단체 합동으로 培材중학교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어머니는 할머니(릴리아스·호튼)가 묻히신 양화진 외국인묘지에 안장되었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운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신의상사

교민 소매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계속 성장하는 폐사에서는 금번 신회계년도 대비한 재고정리를 위하여 특별 대 할인 대매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982년 2월15일부터 2월26일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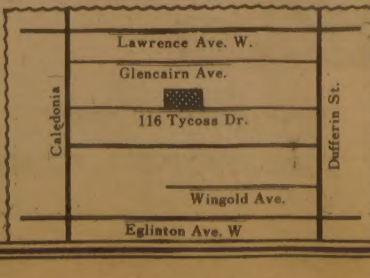
		Reg.	Spec.
CANADA DRY PRODUCTS			5.79
WILSON PRODUCTS			5.69
7UP PRODUCTS			6.69
SUNPAK PRODUCTS			8.39
ROYAL TOILET TISSUE	(24×2S)	22.90	16.99
DELSEY 〃 〃	(24×2S)	22.90	17.99
HI DRY PAPERTOWEL	(18×2'S)	22.50	19.45
HI DRY	(24×1'S)	20.90	18.50
KLEENEX POCKET	(12×12'S)	16.50	15.00
TAMPAX REG. SUPER SUPERPLUS	(12×10'S)	12.95	10.95
ROYAL FACIAL TISSUE	(36×200PLY)	35.60	31.95
ROYAL 〃 〃	(72×100PLY)	35.60	31.95
HALLS DEAL		36.00	33.95
HUBA BABA DEAL		19.56	16.95
*DENTYNE, CHICLETS, ADAMS GUM		4.19	3.39
*BUBBALOO TRIDENT GUM		4.73	3.95
*CLORETS		3.25	2.75
*FRESHENUP		5.25	4.59
ROWNTRY PRODUCTS BAR(FAMILY PACK)	(REG×4)	1.20	.99
〃 〃 FAMLY SIZE BAR	(24'S)	17.89	15.89
CAD BAR	(REG×36'S)	10.89	10.39
〃 〃	(24'S)	17.89	15.89
SUNUGHT 3l	(12×3l)	24.12	22.95
SUNLIGHT LIQUID		24.89	22.39
LYPSOL		6.95	6.09

*는 예전 가격입니다 Pop종류 배달시 case당 15¢ charge함.

		Reg.	Spec.
BICYLLE CARD C		19.95	17.95
BEE CARD		20.95	18.95
PRINGLE POTATO CHIP		34.95	31.95
BLACK GARBAGE BAG		20.90	15.99
BOOK MATCHES		19.95	14.95
LIFE SAVER	(ALL FLAVER)	4.95	4.69
BIC LIGHTER		.72EA	.69EA
PEN KRAZY GLUE		2.39	2.19
KRAZY GLUE		1.89	1.59
ASPIRIN	24'S	9.50	7.39
〃	48'S	12.50	9.89
BABY ASPIRIN	24'S	7.55	6.99
DRISTAN	½ DZ.×24'S	13.55	10.99
FIRELOG	(5 lb×6)	7.29	6.99
GROCERY BAG	½ lb		3.09
〃	1 〃		3.49
〃	2 〃		4.06
〃	3 〃		4.65
〃	5 〃		6.09
〃	6 〃		6.49
〃	7 〃		7.03
〃	8 〃		7.49
〃	10 〃		8.42
〃	12 〃		10.39
〃	14 〃		11.33
〃	20 〃		13.34
〃	9SAC 〃		18.32
〃	11SAG 〃		26.43

주식회사 신 의 상 사
SINCERE TRADING CO. LTD.

116 TYCOS DR. TORONTO
☎ : 789-7544, 7545, 7546, 7547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번역, 통역 :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안 통역해드림
☎ : 281-1677 이 영 화(전대학강사)

주방일 도우실분 구함.
☎532-2727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Mr. 한

청소, 수퍼 바이저 할분과
스프레이 버핑 하실분 구함
☎962-0019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 :
세파드×돈 · 밀스
☎ : 491-9701(6시이전), 292-8838(6시이후)

매매및 양도

다운타운 — 하이 볼륨 그로서리 스토아
현매상, 월 $50,000이상. 좋은 리스.
아스킹 $150,000 ☎535-0028(Mr. Kim)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 299-1713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이주관계로 "가와이"피아노 팔려고 합니다.
GOOD QUALITY
☎ : 425-0635

스토아 매니저 구함, 또는 가게를
팔수도 있음 몬트리올지역
(SMALL DOWN PAYMENT)
☎ : 1-514-637-6444

● 세탁소(맞춤, 수선도함)
아스킹 $13,500
● CONVENIENCE STORE(베더스트지역)
OPEN OUR : 9 : 00AM~9 : 00PM
아스킹 $19,000 ☎ : 763-5555 DORIS BURDA
R. CHOLKAN CO. LTD. REAL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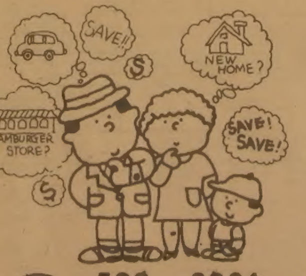
그로서리도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아파트 많은 지역임, 주매상 : $4,500, 아스킹 : 42,000+스탁
렌트 : $650+하이드로(월)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주소 : 550 SHEPPARD AVE. W.

버라이어티 스토아(미니·마트)팝니다
(5개월전 개업 : 개인사정으로 급히 가게처분 하기원함)
상점넓이 : 2000sq. ft., 스토레지룸 : 1500sq. ft.
주매상 : $3,700, 핀볼머신 수입 $250(주)
렌트 : $570(월), 리스 : 5년+5년 옵션
권리금 : $20,000+스탁, 위치 : 런던 · 온타리오
☎ : 1-519-473-4654(MR. KIM)

하우스 렌트

집세놓음(스카브로 동부지역) : 3 베드룸 방갈로, 차고 있음, 지하실 꾸며져 있으며 화장실2개, RENT $400 + 하이드로(월), ☎ : 822-4480

5일에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 : 533-2361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주세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양 장 점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룰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 INVENTORY —
① 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6-5001(R) 전기덕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라지에타(개스탱크, 히터,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EDIATOR CO.
☎ : B)245-1978 R)248-6032 김용환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웨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넘파 · 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생화, 조화, PLANTS, GIFT 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어정용)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GGA ☎ : 273-7300 이 명 세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기 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 533~2361

숨바꼭질 ⑲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제발 아무도 깨우지 말았으면, 건드리지도 말았으면, 그 서랍속의 작은 악마를. 한손가락의밥 한개의 고구마를 동생에게 나누어주기 싫어 동생을 없애버린 징그러운 아귀를.

그작은악마가 깨어나야만 목이의 잃어버린 생을 찾아줄수있다고해도 그 악마는 잠자야한다. 영원토록.

수지는 순전히 자신의 수치심을 위해 그걸 빌었다. 목이의 잃어버린 생애보다는 자신의 수치심이 더 소중했다.

버스가 덜컹거리기를 멈추고 부드럽게 구르는가싶더니 불빛이 휘황한 거리로 접어들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우여우역 올라왔다. 작년까지만해도 거기까지가 버스 종점이었다. 밭고 시골시골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고장으로 들어서고나니 「온누이의집」에서 있었던 일이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 여겨졌다.

아울러 일곱살적의 실수도 참으로 하찮게 느껴졌다. 침소봉대도 분수가 있지 그만 실수때문에 여기저기 얼마나 구질구질한 관계를 끌어왔으며 얼마나 마음에도 없는 착한 일을 되풀이했던가?

어릴 적에 엄마 돈지갑에서 몰 잔돈푼을 훔쳐내서 군것질한 경험이 한번도 없이 어른됐다고 장담할수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지를수 있는 소질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런 소질이 전쟁을 만났기때문에 좀 더큰 잘못을 저질렀을 뿐이다.

수지는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며한편 여지껏의 자신의 행동이 작은 잘못을 너무크게 보상하기위한 것만같아 짜증스럽기도 했다. 그런 짜증에는의당 도덕적인 만족감 같은 것도 포함돼있어 집에 당도했을때 그녀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였다.

그녀의오빠 수철이가 근래에 신축한 집은 외모는 평범한 양옥이었으나 내부는 아름답고 기능적이었다. 한남석씨가 물려준 구옥도 뼈대가 튼튼하고 제 솜모가 있어서 시대에 맞춰 여기저기 조금씩 손봐가며 살면서 몇년을 두고 꿈꾸고 벼르고 계획해서 지은 새집이었다.

수철이는 워낙 빈틈없이 꼼꼼한 성품이었지만 그 집을 지을때는 치밀한 계획성에다 유별난 애정까지 쏟아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때처럼 몰입했다. 금전과 정열을 아끼지않았을뿐더러 괴팍까지 떨어서 시공하는 사람과 자주 충돌했다.

수지는 엄마의 손때, 아버지의 성품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목조건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일에 마음 설레기보다는 감상적인 비애에 잠겨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나 막상 새집이 완공되어 들고보니 집이라는 것의 참뜻을 새삼 알것 같았다. 집은 단순하게 삶을 담는 그릇이상의 것, 그 속에 담긴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주는 그 무엇이었다.

남보다 좀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남매를 거느리고, 삼십안짝에 자기 사업의 기반까지 굳힌 수철이의 가정은 그 전에도 누구나 부러워할만큼 행복한 가정이었으나 아담하고 우아한 새집에 들고보니 그 행복이라는게 진열장에 진열된 보석처럼 더욱 빛나고 돋보였다. 도대체가 흠 잡을데라고는 없었고 작은 불행이 숨어있을만한 그늘도없었다.

마치 캔이나 유리병 속에 들어있던 주스를 아름다운 크리스탈 컵에 옮겨 담았을때 만큼이나 깜짝 놀라도록 달라보였다. 캔속의 주스와 크리스탈 속의 주스가 어찌 질이 같다할수 있을까? 우리의 혀는 결코 그렇게 정직하지않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2>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2ND CLASS MAIL NO.